



KIEP 기초자료
22-01

2022년 2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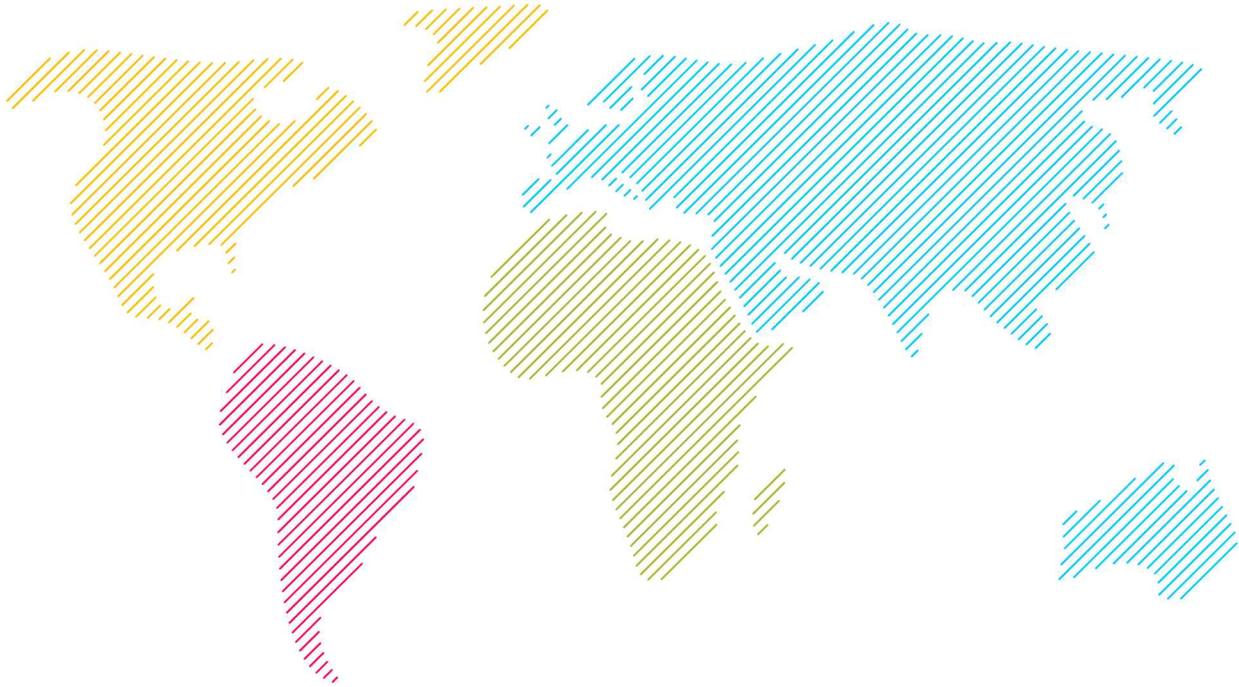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요약

- ▶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부는 빠르게 정권을 장악해 과도정부를 수립(8월)한 가운데, 민주진영에서는 국민통합정부(NUG)를 수립해 시민불복종운동(CDM)과 무장투쟁을 병행함에 따라 미얀마에서는 이중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군부는 강경 및 유혈 진압을 지속하면서 2023년 8월 총선 실시 일정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한편, 민주진영은 시민불복종운동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방위대(PDF) 주도로 일부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함.
- ▶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응은 '미국과 EU 주도의 선별 제재'와 '아세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로 귀결되고 있으며, 중재의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제재는 주로 미얀마 군부 관련 주요 인사나 관련 기업(기관)에 국한된 가운데 최근 그 대상이 추가되고 있으며, 아세안에서는 '폭력행위 즉각 중단과 자제, 특사 파견, 당사자간 대화 등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 체결(4월), 미얀마 군부를 제외한 정상회의 개최(10월) 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음.
- ▶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 여파로 미얀마 경제는 2020 회계연도(2020. 10~2021. 9)에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사회가 안정되고 비즈니스 활동도 정상화되면서 일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음.
 - 미얀마 경제는 특히 2020 회계연도에 대외무역 감소, FDI 부진, 환율 급등 등으로 마이너스 18%라는 기록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토탈(TotalEnergies), 텔레노르(Telenor), 셰브론(Chevron), 토요타(Toyota) 등의 투자 중단 및 철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 군부와 민주진영 간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부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져 2023년 중반 이후에는 군부 권위주의 또는 데잉세잉 정부 당시의 규율 민주주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음.
 - 군부에 비해 민주진영의 활동은 구심점 부재와 군부의 탄압 등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아세안의 중재 노력 역시 자체의 내정불간섭 원칙 기조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음.
- ▶ 한국은 정부와 기업 모두 미얀마의 상황 변화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차원의 대(對)미얀마 경험전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의 경우 미얀마의 정세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2차 제재 가능성, 더 나아가 현지법인의 인권상황이나 파트너 기업의 상황도 고려해 미얀마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차 례

1. 연구 배경과 목적
2. 미얀마 정치·사회 동향: 이종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 지속
 - 가. 군부의 정권 장악
 - 나. 반군부 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 설립과 무장투쟁
 - 다. 코로나19 확산
3. 주요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선별 제재와 중재
 - 가. 미국과 EU 주도 선별 제재
 - 나. 아세안의 중재
 - 다. 중국·러시아·인도의 제재 반대
4. 주요 경제 동향: 극심한 부진 속 완만한 회복세
 - 가. 주요 경제정책
 - 나. 주요경제지표 변화
 - 다. 현지 진출기업의 움직임
5.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가. 미얀마 정세 전망
 -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연구 배경과 목적

■ 쿠데타 발발 1년이 경과된 미얀마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과도정부를 수립(2021년 8월)하고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을 넘어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등 교착상태(stalemate)가 지속되고 있음.

- 쿠데타 이후 2022년 2월 11일까지 군부의 탄압에 의해 1,547명이 숨졌으며, 만 명 이상이 체포된 가운데 9,087명이 구금됨.¹⁾
- 시민들의 시민불복종운동(CDM)이나 반대 시위가 많이 악화된 가운데 게릴라성 시위나 불매운동 등으로 민주화 운동 양상이 변하고 있으며, NUG의 무장투쟁 역시 일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음.

■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EU 중심의 규탄 성명 발표와 선별 제재(targeted sanction), 아세안(ASEAN)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 EU, 영국 등은 군부 쿠데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미얀마 군부 및 쿠데타 관련자나 기관에 대한 선별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 등도 이에 동참함.
- 아세안은 회원국 미얀마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정상회담 개최(2021년 4월과 10월), 미얀마 특사 선정(2021년 8월) 및 파견(2021년 6월과 2022년 1월), 의장국 총리의 미얀마 방문(2022년 1월)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미얀마와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항'에 합의함.
- 또한 세계의 많은 곳에서 군부의 쿠데타나 유혈탄압을 규탄하고 있고, 미얀마 민주진영과 연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21년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경제는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의 부진, 현지화의 대(對)달러 환율 급등, 외자기업의 철수나 투자 중단 사례 증가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함.

- 세계은행은 2021년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18.0%로 추정하였고 2022년 성장률 전망에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얀마를 제외하였으며,²⁾ 미국의 Chevron, 프랑스의 TotalEnergies, 일본의 Kirin과 노르웨이의 Telenor 등 많은 다국적기업이 연이어 미얀마 시장에서 투자 중단 또는 철수 계획을 발표함.

■ 본 연구는 쿠데타 발생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를 정치·사회와 경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전망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Burma)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4).

2) World Bank Group(2022), p. 71.

- 특히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현지 진출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미얀마 정치·사회 동향: 이중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 지속

가. 군부의 정권 장악

■ 2021년 2월 1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얀마 군부는 국가행정평의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설립을 통해 행정, 입법, 사법 등 국가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함은 물론 반군부 진영에 대한 무력탄압을 지속함.

- SAC는 3부(府)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군 총사령관인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65세)이 의장을 맡고 각 지역에도 행정평의회를 설치함.³⁾
- 군부는 우선 국경 봉쇄, 방송·통신 장악, 은행업무 중단, 주요 도시 통제 등을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SAC를 지원하는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함.
-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평화협의회도 새로 구성함.
-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군부는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77세) 국가고문은 물론 윈민(Win Myint) 대통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원 등 반군부 인사 수백 명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였고, 모든 반군부 단체를 비합법 조직으로 규정함.
 - 2022년 1월 말 기준 NLD 의원들은 대부분 석방되거나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는 여전히 체포되어 있거나 재판과 받고 있음.
 - SAC는 NLD 의원이 주축을 이루는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는 물론 2021년 4월과 5월 출범한 국민통합정부(NUG)와 국민방위대(PDF: People's Defence Force)를 비합법 조직으로 지정함.

3) 정재완, 김미림(2021), p. 3.

표 1. 미얀마의 쿠데타 전후 정치연표(2020년 11월 이후)

시기	주요 사건
2020년 11월	민주정권하 최초의 총선(투표율 72%) 실시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승리
2021년 2월	군부, 수찌 국가고문 겸 외무부장관과 윈민 대통령 등 주요 인사 구속
	흘라잉 군 총사령관을 포함한 군인 등 11인으로 구성된 국가행정평의회(SAC) 설치 및 5개 항의 로드맵 발표
	2020년 11월 총선거로 선출된 NLD 의원을 중심으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결성
	시민불복종운동(CDM) 시작
4월	SAC, CRPH를 비합법 조직으로 지정
	SAC, 선거관리위원회(UEC) 개편과 UEC를 통해 2020년 총선 효력 무효화
5월	CRPH, 국민통합정부(NUG) 출범
	흘라잉 SAC 의장, 아세안(ASEAN) 정상회담(자카르타, 온라인) 참석 및 5개 항 합의(24일)
6월	NUG, 국민방위대(PDF) 결성 발표
	군부, NUG와 PDF를 비합법 조직으로 지정
7월	군부, NLD 해산 시사
	브루나이 제2외무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 미얀마 방문, 흘라잉 군 총사령관 겸 SAC 의장 면담
8월	흘라잉 군 총사령관 겸 SAC 의장, 러시아 방문
	군부,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 수립 및 흘라잉 군 총사령관 겸 SAC 의장의 과도정부 총리 취임
9월	과도정부, 2023년 8월까지 복수정당에 의한 총선 실시방침 발표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정당에 대한 감사 착수
10월	과도정부, 2022년 2월까지 소수민족과의 휴전 일방적 선언
	NUG, 저항전쟁 선언 및 군에 대한 저항 호소
2022년 1월	과도정부, 경제회복계획(MERP) 수립 시사
	아세안, 미얀마 군부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정상회의 개최
2022년 1월	캄보디아(ASEAN 의장국) 훈센 총리,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방문
	훈센 총리와 흘라잉 과도정부 총리, 소수민족과의 휴전 2022년 말까지 연장 발표

자료: 福地亜希(2021), p. 3과 주요 언론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쿠데타 직후 SAC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총선 실시 등을 담은 5개항의 로드맵(Five-Point Road Map)을 발표하였고, 8월에는 과도정부를 수립함과 동시에 향후의 정치일정도 제시함.

- SAC의 5개 항 로드맵: ①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및 유권자명부 검증 ② 코로나19 감염 억제 및 백신 접종, ③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기업의 신속한 회복 지원 ④ 전국휴전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에 기반한 국가 전체의 항구적인 평화 실현 ⑤ 2008년 헌법이 정한 기한 내 자유롭고 공정하게 복수의 정당에 의한 총선 실시 및 승자에 대한 정권 위양⁴⁾
- 2021년 8월 1일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를 수립하고 흘라잉 군 총사령관 겸 SAC 의장이 과도정부 총리에 취임하였으며, 소윈(Soe Win) SAC 부위원장이 부총리를 맡음.
 - 군부 주요 인사를 각 부처 장관과 각 지역 주지사로 임명함.
- 과도정부는 2008년 헌법 규정을 근거로 2023년 8월까지 복수정당에 의한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4) "Five-Point Road Map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2021. 8.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25).

연이어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정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 2월까지 소수민족과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함.

- 미얀마의 2008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기한은 공포일로부터 1년간(제417조)이고 6개월간 2회 연장이 가능(제421조)하며 비상사태 선언 종료 후 6개월 이내 총선을 실시(제429조)할 수 있음.⁵⁾

■ 군부는 이와 함께 시민불복종운동(CDM)과 반군부 시위활동에 대한 유혈 및 무력 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상자가 속출하거나 체포·구금된 인사가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2월 11일 기준 군부의 탄압에 의한 누적 사망자는 1,547명이며, 체포되었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사도 1만 1,061명에 달함.⁶⁾
-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 윈민(Win Myint)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부 및 NLD 인사는 군부에 의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회혼란 선동, 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나. 반군부 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 설립과 무장투쟁

■ 쿠데타 발생 초기 반군부 시위는 직장인과 공무원 중심의 시민불복종운동이었고, 이는 총파업과 연계된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으나, 군부의 강경 탄압과 동력 상실로 최근에는 많이 약화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전환됨.

- 초창기 참가 계층 확대와 대규모 총파업(22222 시위) 등으로 확대되던 CDM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약화되거나 소규모 항의 시위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일부 국지적 시위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점차 평정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짐.⁷⁾
- 군부의 강경 및 유혈 진압에 의해 최근 미얀마 시민들의 반군부 시위는 세금이나 전기세 납부 거부, 군부계 기업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됨.
 - 특히 NUG는 최근 군부의 무기수입에 관여하고 있는 자국기업(브로커) 9개를 거명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군부와 의 거래단절, 불매운동,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등을 요청함.⁸⁾

■ 반군부 진영은 쿠데타 직후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2월)와 임시정부인 NUG(4월)를 설립함과 함께 5월에는 국민방위대(PDF)를 설립하고 무장투쟁을 이어오고 있음.

- CRPH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당선된 NLD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나,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포되거나 가택연금 상태임.

5) Printing & Publishing Enterprise, Ministry of Information(2008), pp. 167-171.

6)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Burma)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4).

7) 福地亜希(2021), p. 4.

8) 9개 기업으로는 AK Group, International Gateway Group, Dynasty Group, Suntac Group, STE Global Trading Company, KT Group and Ky-Tha Group, Myanmar Chemical and Machinery(MCM) Group, Htoo Group, Trident Marine Group 등이 있음.

- NUG는 쿠데타 직전의 민주정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이자 망명정부를 구성하여 반군부 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구속된 주요 인사를 대신해 두와 라시라(Duwa Lashi La)가 임시대통령 자리에 오름.
 - NUG는 △ 군사정부 상대의 무장투쟁 △ 모든 소수민족 공동체와 국민 간 단합 강화 △ 해외 주요 국가에 네트워크 구축 △ 진정한 연방 및 민주연합인 'New Myanmar' 건설 등을 중점 투쟁방향으로 설정함.⁹⁾
 - NUG는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체코, 한국 등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EU 의회와 프랑스 상원은 NUG를 미얀마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PDF는 NUG에 의해 무장투쟁조직으로 설립되어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시민에 의해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무장투쟁은 주로 북서부와 중동부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음.
 - PDF는 현재 전국적으로 120~130개 단체에 총 2만~3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경지대 소수민족에게서 훈련과 무기를 지원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과 연대해 군부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⁰⁾

■ 과거부터 이어져온 주요 소수민족의 반정부 무장투쟁이 쿠데타 이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소수민족의 경우 PDF에 참가하거나 연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항하고 있음.

- 소수민족 무장투쟁은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1947년부터 이어져왔으며, 무장투쟁 세력의 크기가 다양하고 활동무대 역시 전국에 흩어져 있어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 전체 소수민족 무장세력은 약 8만~1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40만 명(준군사조직 포함 시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얀마 정부군에 비해서는 열세임.¹¹⁾

표 2. 미얀마의 주요 소수민족 무장세력 현황(2020년 기준)

조직명	설립연도	분포 지역	추정 병력(명)
【소수민족무장조직】			
와주 연합군(UWSA)	1989	와 자치지역(산주)	30,000 (예비군 30,000)
카친독립조직(KIO/KIA)	1961	카친주~산주 북부	10,000~12,000 (예비군 10,000)
산주 부흥평의회(RCSS)	1964/1996	산주 일부	8,000+
산주 진보당(SSPP)	1964/1989	산주 북부	8,000+
팔롱주 해방전선(PSLF)	1992	산주 북부	6,000+
카렌민족동맹(KNU)	1947	카렌주, 떠닝타리지역 북부	5,000
민족민주동맹군(NDAA)	1989	산주 동부	3,000+
아라칸군(AA)	2008	KIO/KIA 지배지역, 라카인주	3,000
미얀마 민족신탁·정의당	1989	산주 북부 코강자치구 일부	2,000+
민주카렌자선군(DKBA)	2010	카렌주 남부 국경	1,500+
신문주당(NMSP)	1958	몬주, 떠닝타리지역 일부	800+ (예비군 2,000)
카레니민족진보당(KNPP)	1957	카야주 동부 국경	600+
나가랜드민족사회주의평의회-카프란파(NSCN-K)	1980	친주 북부, 사가잉주 서부	<500

9) 김남권(2022. 1. 24), 「미얀마쿠데타 1년②반군부진영 대통령 대항 "무기·돈 유입 차단 제재 필요"」,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25).

10) 福地亜希(2021), pp. 4~5.

11) 위의 자료, p. 5.

빠오민족해방기구(PNLO)	2009	산주 남부	400+
친민족전선(CNF)	1988	친주 서부 국경	200+
KNU/KNLA화평평의회(KPC)	2007	카렌주 일부	<200
아라칸해방당(ALP)	1967/1973/1981	라카인주 북부, 카렌주	60~120
타양민족해방군(TNLA)	?	산주 북부	1,500

【구(舊)학생조직】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1988	KIA/KNU 지배지역	400+ (카친주 200)
------------------	------	--------------	----------------

자료: 福地亜希(2021), p. 5와 工藤年博 編(2015), p. 179를 토대로 저자 수정

- 다만 PDF의 주류가 미얀마 지배민족이자 다수족인 버마족이라는 점과 각 소수민족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의 PDF 참여나 연대 투쟁에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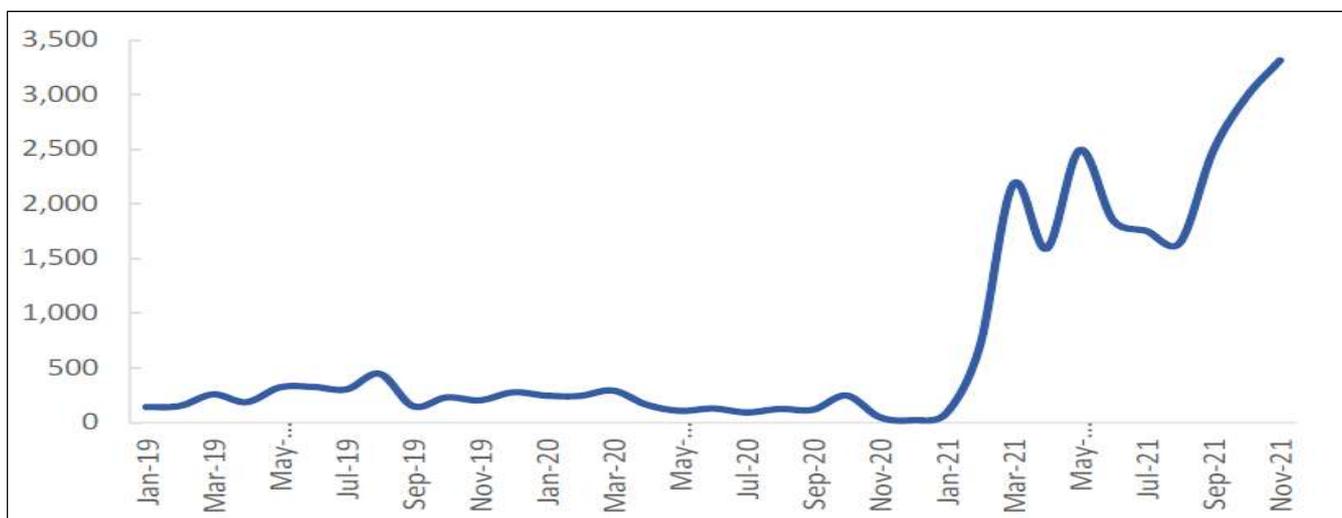
- PDF와 연대해 반군부 투쟁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4개, 훈련지원과 같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6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¹²⁾

■ 군부의 강경진압과 이에 맞선 시민·민주진영의 저항, 더 나아가 소수민족과 연대한 무장투쟁이 전개되면서 미얀마 내 분쟁과 이에 따른 난민이 급증하고 있음.

- 미얀마 내 분쟁빈도(conflict intensity)는 2021년 2월 쿠데타 발생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NUG가 저항전쟁을 선언한 9월 이후 더욱 크게 증가함.

- 분쟁은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사가잉(Sagaing), 매그웨이(Magwey), 만달레(Mandalay), 카친(Kachin), 샨(Shan), 친(Chin) 등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¹³⁾

그림 1. 2019년 이후 미얀마의 월별 분쟁빈도(conflict intensity) 추이(2019년 1월 ~ 2021년 11월)



주: 분쟁빈도는 2018년 12월을 기준(100)으로 발생사태와 사망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정. 발생사태는 전투, 폭발, 폭력행위, 시위, 폭동, 전략적 전개 등을 포함하고 사망률은 각 사태를 종합함.

자료: World Bank(2022), p. 15.

12) International Crisis Group(2022), p.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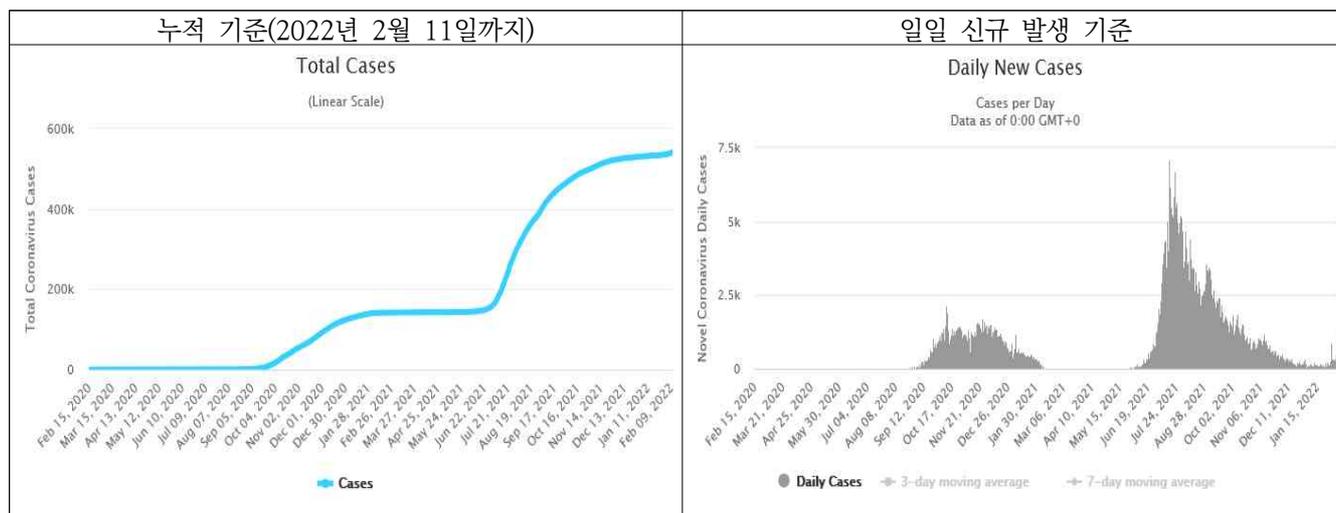
13) World Bank(2022), p. 15.

-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에 의하면, 군부 쿠데타 이후 약 32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주로 카야(Kayah), 사가잉, 카인(Kayin), 샨, 친 지역에서 발생함.¹⁴⁾

다. 코로나19 확산

- 미얀마는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시설 부족, CDM 참가에 따른 의료진 공백, 통계 미비 등으로 정확한 확진자 수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2020년 8월 2차 유행에 이어 2021년 7월부터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으나, 2021년 11월 이후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함.
- 2022년 2월 1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4만 1,904명, 완치자는 51만 4,833명, 사망자는 1만 9,310명이며,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는 9,853명에 달함.¹⁵⁾

그림 2.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 Worldometer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1).

-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국경봉쇄, 발생지역 출입금지와 행동제한 등)을 시행한 미얀마는 3차 대유행이 진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거나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낮은 수준임.
- 미얀마는 당초 2021년 12월 말까지 시행했던 입국자에 대한 21일간의 격리(탑승 전 자가격리 + 시설격리 + 자가격리) 조치를 2022년 1월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행동제한 역시 2022년 1월 말까지 연장함.¹⁶⁾
 - 주요 행동제한 조치로 집회 및 야간외출 금지조치를 연장(일부 지역 제외)하고,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행사인 원 상한제는 일부 완화를 거쳐 2021년 12월 말 해제하였는데,¹⁷⁾ 이러한 행동제한 조치에는 반군부 시위를 방지

14)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2022),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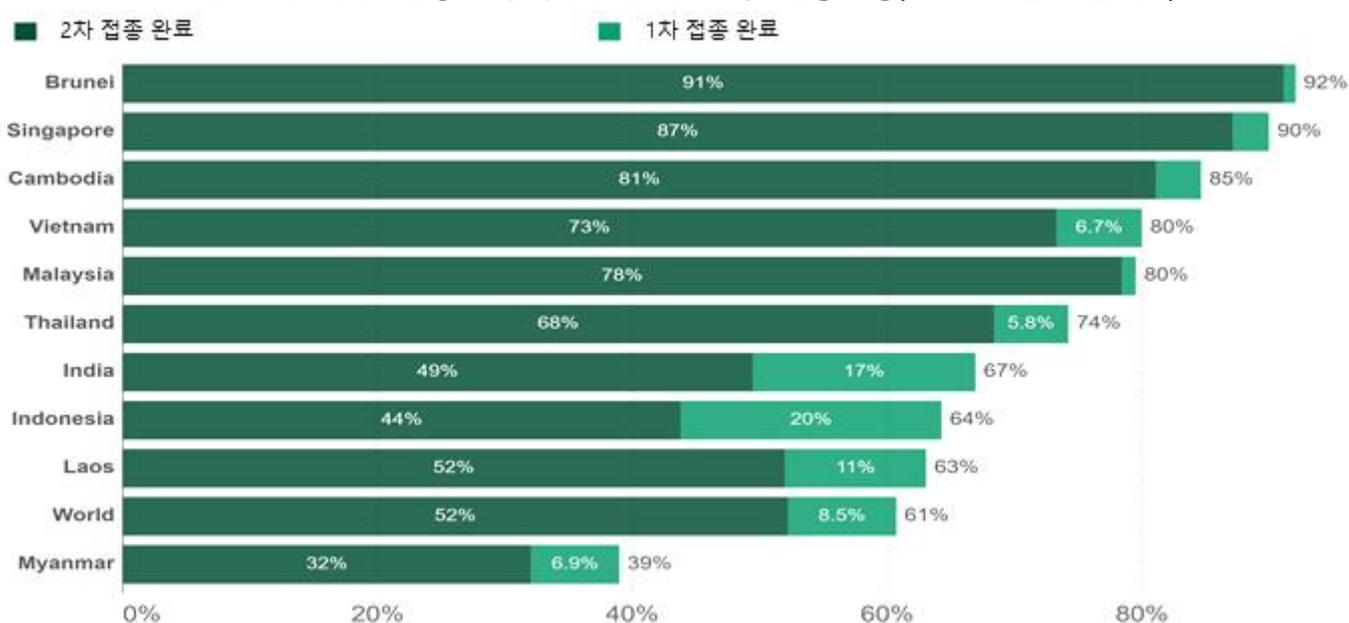
15) Worldometer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1).

16) 自治体国際化協会 シンガポール事務所(2022), p. 2.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1월 25일 기준 미얀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완료자(1, 2차 접종)가 전체 인구의 32%, 1차 접종자가 39%로 세계 평균(각각 52%와 61%)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남방 국가 중에서도 가장 뒤쳐진 수준임 (그림 3 참고).
- 이 중 미얀마가 중국으로부터 구매했거나 중국이 지원한 코로나19 백신(Sinopharm, Sinovac)은 2022년 1월 24일 기준 4,434만 도스(3,370만 도스 구매 + 1,064만 도스 증여)임.¹⁸⁾

그림 3. 미얀마와 신남방 지역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2022년 1월 25일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홈페이지(검색일: 2022. 1. 27).

- 미얀마는 비록 확진자 수 감소로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시설이나 장비, 의료진, 백신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보건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이나 반군부 진영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17) 위의 자료, p. 2.

18) China COVID-19 Vaccine Tracker 홈페이지(검색일: 2022. 1. 27).

3. 주요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선별 제재와 중재

가. 미국과 EU 주도 선별 제재

1) 미국

■ 미국은 미얀마 쿠데타를 발생 직후부터 ‘군부에 의한 쿠데타’, ‘민주적 전환을 저해한 사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전환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공격’ 등으로 규정하고 규탄함과 동시에 쿠데타 당사자인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함.¹⁹⁾

- 미얀마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는 ① 군부의 주요 인물 및 사업체(기관 포함) 또는 이와 연계된 인물 및 사업체(기관)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특별제재대상 리스트(SDN List: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선정 ② 상무부의 민감 품목(sensitive item) 긴급 수출제한조치 발동 ③ 미국 내 자산 동결 ④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미얀마 정부에 대한 개발지원(ODA) 중단 등으로 구성됨.²⁰⁾

■ 미국은 쿠데타 직후인 2021년 2월 10일 행정명령 14014호(Executive Order 14014,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Burma」, 이하 E.O. 14014)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며,²¹⁾ 미얀마 상황의 악화 및 지속을 이유로 제재 대상자 및 기관을 추가로 확대함.

- 미국은 행정명령(E.O.) 14014를 통해 미얀마 군부나 쿠데타 관련 주요 인물 및 군부와 연계된 사업체(기관 포함)를 재무부 SDN List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비자 중단, 미국인과의 물품·자산·서비스 거래 금지, 미국의 수출과 재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함.

- 미국은 일차적으로 쿠데타 주동자인 흘라잉 군 총사령관, 소원 군 부사령관을 포함한 10인과 군부계 기업(MEHL) 산하 보석 관련 기업 3개(Myanmar Ruby Enterprise, Myanmar Imperial Jade Co., LTD., Cancri(Gems and Jewellery) Co., LTD)를 제재함.

19) 정재완 외(2021), pp. 8~9.

20) 위의 자료, p. 9.

21) The White House(2021. 2. 11), “Executive Order on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Burma”(검색일: 2022. 2. 3).

표 3.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행정명령(E.O.) 14014 제1~3조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항(a)	미국 내 모든 자산 및 이익 동결 및 거래 금지 - 미국 내에 존재하거나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자산 및 이익과 미국인의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거나 있게 될 모든 자산과 이익을 동결하며, 관련 모든 자산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및 기타 취급 금지 - 대상이 될 외국 국적의 인물은 재무부장관이 국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제재 대상	(i) 버마 국방산업 혹은 다른 산업이라도 재무부장관이 국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자
	(ii) 다음 중 하나라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여를 시도한 경우 A. 버마의 민주적 절차 혹은 기관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정책 B. 버마의 평화, 안보 또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정책 C. 버마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를 금지·제한, 또는 차별하거나 인쇄, 온라인, 또는 방송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동 또는 정책 D. 버마 국민의 임의적인 구금, 고문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
	(iii) 다음 단체의 지도자 혹은 관리자인 경우 A. 버마 군대, 안보군 또는 그 후계 단체 B. 2021년 2월 2일 이후의 버마 정부 C. 해당되는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임기 중에 상기 (ii)에 기재된 행위에 참여한 단체 혹은 참여한 구성원들이 있는 단체 D. 해당되는 지도자 또는 관리자의 임기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단체
	(iv) 버마 정부의 정치적 하위기관, 대리기관 또는 대행기관
	(v)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
	(vi)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자에게 물질적인 제공, 후원 혹은 재정적·물질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자
	(vii) 본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 및 이익이 동결된 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 또는 그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한다고 알려진 자
(b)	상기 제1조항(a)에서 밝힌 금지 사항은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2021. 2. 10)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 면허(license), 허가 등에도 적용
제2조항	제재에 포함되는 사항 - 해당 제재대상에게 이익이 되도록 기여되는 모든 자금, 재화, 용역 제공 금지 - 해당 제재대상으로부터 제공 받는 모든 자금, 재화, 용역의 수령 금지
제3조항(a)	미국 입국과 관련 사항 - 해당 제재대상자의 미국 입국을 일괄 금지 - 단 국토안보부장관의 판단과 법무장관의 권고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입국 인정

자료: 정재완 외(2021), p. 10에서 재인용.

- 이후 미국은 2022년 1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 총 61명의 주요 인사와 23개 기업(기관 포함)을 SDN List에 등재함(표 4와 5 참고).

표 4. 미국의 미얀마 제재조치 발표 일정 및 주요 내용

발표 시기	제재 주요 내용
2021년 2월 10일	-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실(OFAC)의 제재대상 리스트(SDN List)에 군 관계자 10인 및 군부계 기업(MEHL) 산하 보석 관련 기업 3개 등재 - 안전보장 관련 물자 수출금지(→3월 4일 관리 강화) -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약 4,240만 달러)은 시민사회나 민간부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한 후 계속 지원
2월 22일	- 국가행정평의회(SAC) 간부 2명 제재대상으로 지정
3월 10일	- 홀라잉 군 총사령관 자녀 2명 및 자녀 소유 기업 6개 제재대상에 추가
3월 22일	- 미얀마 경찰 및 군 간부 2명과 육군 2개 사단을 제재대상에 추가
3월 25일	- 군부계 기업 2개(MEHL, MEC) 제재대상에 추가
3월 29일	- 미얀마와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일시 정지 - GSP 제외 가능성 시사(2020년 말 실효 후 의회의 재부여 논의 중단)
4월 8일	- 국영기업 미얀마보석공사(MGE) 제재대상에 추가
4월 21일	-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산하 국영기업 2개(미얀마임업공사(MTE)와 미얀마진주공사(MPE)) 제재대상에 추가
5월 17일	- SAC와 군 관계자 16명 제재대상에 추가
7월 2일	- SAC 간부 및 군 관계자 22명과 군부계 기업 4개를 제재대상에 추가
2022년 1월 26일	- 6개 부처 공동, 미얀마 관련 비즈니스(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목적의 권고 발표
1월 31일	- 군 관계자 7인과 기관 2개를 제재대상에 추가

자료: 福地亜希(2021), p. 8; 장재원(2021);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3)와 각종 언론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표 5. 미국 SDN List에 등재된 미얀마 주요 인사와 기관(2022년 1월 31일 기준)

시기	인물(person)	기관 또는 기업(entity)
2021년 2월 11일	Min Aung Hlaing, Soe Win, Myint Swe, Sein Win, Soe Htut, Ye Aung, Mya Tun Oo, Tin Aung San, Ye Win Oo, Aung Kin Dwe	Myanmar Ruby Enterprise, Myanmar Imperial Jade Co., Cancri(Gem and jewellery) Co.
2월 22일	Moe Myint Tun, Maung Maung Kyaw	
3월 10일	Aung Pyae Sone, Khin Thiri Thet Mon	A&M Mahar Company, Sky One Construction Company, The Yangon Restaurant, The Yangon Gallery, Everfit Company, Seventh Sense Company
3월 22일	Than Hlaing, Aung Soe	33rd Light Infantry Division of the Burmese Army(33 LID), 77th Light Infantry Division of the Burmese Army(77 LID)
3월 25일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MEHL), Myanmar Economic Cooperation(MEC)
4월 8일		Myanmar Gems Enterprise
4월 21일		Myanma Timber Enterprise, Myanmar Pearl Enterprise
5월 17일	Mahn Nyein Maung, Thein Nyunt, Sai Lone Saing, Khin Maung Swe, Ko Ko Hlaing, Tun Aung Myint, Tun Tun Naung, Than Nyein, Pwint San, Win Shein, Thein Soe, Thet Khaing Win, Khin Maung Yi, Hein Htet, Kaung Htet, Yin Min Thu	State Administrative Council(SAC)

7월 2일	Saw Daniel, Banyar Aung Moe, Aye Nu Sein, Chit Naing, Aung Naing Oo, Myint Kyaing, Thet Thet Khine, Kyu Kyu Hla, Than Than Nwe, Thet Thet Aung, Than Than Aye, Aung Mar Myint, Khaing Pa Pa Chit, Moe Htet Htet Tun, Khaing Moe Myint, Yadanar Moe Myint, Daw Nilar, Theit Thinzar Ye, Ohn Mar Myint, Shwe Ye Phu Aung, Hlaing Bwar Aung, Phyo Arkar Aung	King Royal Technologies Ltd., Myanmar Wanbao Mining Copper Ltd., Myanmar Yang Tse Copper Ltd., Wanbao Mining Ltd.,
2022년 1월 31일	Thida Oo, Tun Tun Oo, Tin Oo, Jonathan Myo Kyaw Thaug, Tay Za, Htoo Htet Tay Za, Pye Phyo Tay Za	KT Services & Logistics Company Limited(KTSL), Directorate of Procurement of the Commander-in-Chief of Defense Services(ARMY)

자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3) 및 정재원(2021), p. 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미국은 이와 함께 상무부를 통한 민감 품목 긴급 수출제한, 2013년 체결한 교역·투자협정(TIFA) 적용 중단, 일반특혜관세(GSP) 재부여 논의 중단 등의 제재도 부여함.

- 미국 상무부는 2월 17일 수출관리법(EAR)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역통제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대상 품목의 미얀마 군부나 군부 관계기관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을 즉시 제한함.
- 미국은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민주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2016년 하반기 부여한 GSP가 2020년 말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재부여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쿠데타 이후 이를 재검토할 것으로 시사함.

■ 군부 쿠데타 발생 직후 미국은 USAID를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미얀마 정부에 대한 개발원조(ODA) 4,200만 달러의 제공도 중단함.

- OECD에 의하면, 미국은 2019년 기준 미얀마에 총 1억 4,020만 달러의 ODA를 지원(지급 기준)했는데, 이는 대미얀마 지원국 4위(전체의 5.1%)에 해당함.²²⁾

■ 미국은 2022년 1월 26일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와 군부에 대한 압력을 목적으로 한 권고를 6개 부처(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노동부, 국토안전보장부, 통상대표부) 명의로 발표함.²³⁾

- 미국은 '미얀마에서 특히 군부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경우 충분히, 그리고 상당히 주의(Due Diligence)하지 않으면 평판(reputation), 금융, 법률(미국의 제재관련법 포함) 면에서 리스크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²⁴⁾
 - 미국은 리스크가 높은 기업 및 분야로 국영기업, 보석·희귀금속 분야, 부동산·건설 사업, 무기·군사장비 및 관련

22) OECD(2021), p. 564.

23) U.S. Department of State(2022. 1. 26a), "Risks and Considerations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with Exposure to Entities Responsible for Undermining Democratic Processes, Facilitating Corruption, and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in Burma(Myanmar)"(검색일: 2022. 1. 28).

24) *Ibid.*

활동 등을 언급하였으며, 자금세탁, 아동 및 강제 노동 등의 리스크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함.

- 국무부는 'Due Diligence'를 위해 참조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의 다국적기업 행동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의 강제노동대책: 사용자 및 기업용 핸드북(Combating Forced Labour: A Handbook for Employers and Business) 등을 소개함.
- 국무부는 권고 발표와 동시에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성명도 발표함.²⁵⁾

2) EU와 주요국

■ 2021년 2월 22일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는 이사회 결론(Council Conclusion)을 발표했던 EU는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자 개발협력 중단과 주요 군부 인사 및 군부계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제재 강화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는 이미 2018년부터 로힝가(Rohingya)족 문제와 관련하여 미얀마 군부 측 인사 14명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일부 품목(미얀마산 쌀)에 대해 GSP 부여를 3년간 중단하고 있음.²⁶⁾
- EU는 2021년 3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을 중단하고, 흘라잉 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11명에 대해 제재(EU 입국 금지, EU 역내 자산 동결, EU 시민 및 기업과 거래 금지)하였으며, 4월과 6월에도 제재대상자나 대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재를 1년간 연장함.
 - EU는 2019년 기준 1억 2,020만 달러의 ODA를 지원(지급 기준)하고 있음.²⁷⁾
 - 2022년 2월 기준 EU는 미얀마의 군부계 인사 65명과 10개 기업을 제재명부에 등재함.
- EU 의회는 미얀마에 대한 선별 경제제재 강화를 EU 위원회에 요구함과 동시에 '미얀마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과 쿠데타 이전으로의 복귀를 위해 미얀마의 CRPH와 NUG를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함.

표 6. EU와 주요국의 미얀마 제재조치 발표 일정 및 주요 내용

지역/국가	발표 시기	제재 주요 내용
EU	2021년 3월 4일	-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중단 발표
	3월 22일	- 흘라잉 군 총사령관 등 군·경찰 관계자 11명의 EU 입국 금지, EU 역내 자산 동결, EU 시민이나 기업과의 거래 금지
	4월 19일	- 군 관계자 10명과 군부계 기업 2개(MEHL, MEC) 제재대상에 추가
	4월 29일	- EU 이사회, EU의 미얀마 제재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6월 21일	- 군 관계자 8명과 국영기업 3개(MGE, MTE, MTE 산하 임산물 가공기업) 및 퇴역군 인조직을 제재대상에 추가
	10월 7일	- EU 의회, EU 위원회에 대해 미얀마에 대한 선별 경제제재 강화 요구, CRPH와 NUG에 대한 지지 성명 결의

25) U.S. Department of State(2022. 1. 26b), "Business Advisory for Burma"(검색일: 2022. 2. 3).

26) 정재완 외(2021), p. 15.

27) OECD(2021), p. 564.

	2022년 2월 22일	- 군 및 정부 관계자 22명과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포함 4개 기업 제재
영국	2021년 2월 18일	- 국방장관 등 군정하 각료 3명의 영국 내 금융제재(자산 동결 및 영국 금융제재집행국에 정보제공 의무) 및 입국금지
	2월 25일	- 홀라잉 군 총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을 금융 및 입국 제재대상에 추가 - 미얀마에 대한 무역진흥정책 중단 발표(재미얀마 영국기업과 미얀마 군부계 기업 간 거래 금지 포함)
	3월 25일	- 군부계기업 'MEHL'을 제재대상에 추가
	4월 1일	- 군부계기업 'MEC'를 제재대상에 추가
	4월 29일	- EU로부터 계승한 '2019 버마(제재)규칙'을 대체하는 '2021 미얀마(제재)규칙' 시행
	5월 17일	- 미얀마보석공사(MGE)를 제재대상에 추가
	6월 21일	- MTE, MPE, SAC를 제재대상에 추가
	9월 2일	- 군 관련 인사와 기업(U Tay Za, Htoo Group)을 제재대상에 추가
		2022년 1월 31일
일본	2021년 2월 25일	- 일본, 신규 ODA 지원 보류(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외) 결정
	5월 20일	- 일본 외무장관, 미얀마 사태의 개선이 없으면 ODA 전면 중단 시사
캐나다	2021년 2월 18일	- 홀라잉 군 총사령관 등 군 관계자 9명의 캐나다 내 자산 동결, 캐나다 국민 및 기업과의 거래 금지
	5월 17일	- 미얀마보석공사(MGE)를 제재대상에 추가
	2022년 1월 31일	- 군부정권 인사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

자료: 福地亜希(2021), p. 8; 정재원(2021) p. 7; 정재원 외(2021) pp. 13-17; 각종 언론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미얀마와의 경제교류가 비교적 많은 영국 역시 기본적으로 EU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요 인사 및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효시킴.

- 영국은 2019/2020 회계연도(2019. 10~2020. 9) 기준 미얀마의 7대 수출대상국, 2021년 8월 기준 5대 투자국(투자허가금액 기준), 2019년 기준 3대 ODA 지원국임.
- 영국의 대미얀마 제재는 주로 군부계 주요 인사나 기업을 대상으로 계좌 및 자금 동결, 영국 금융제재집행국(OFSI)에 관련 정보 제공, 영국 입국 금지 등으로 구성됨.
- 영국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미얀마 군부계 기업과의 거래 금지, 양국간 경제협력프로그램 중단 등도 실시함.
- 영국은 2021년 4월 29일 EU 회원국 당시의 '2019 버마(제재) 규칙'을 대체할 '2021 미얀마(제재) 규칙(Myanmar (Sanctions) Regulations 2021)'을 시행함.
 - 이에 따라 영국은 EU 회원국 당시 로힝자족 문제로 제재한 군부계 인사 14명을 포함하면 2022년 1월 말 기준 미얀마 군부계 인사 27명과 기업 7개를 제재하고 있음.

■ 대미얀마 최대 ODA 공여국인 일본은 미얀마의 민주체제로의 회복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신규 ODA 중단 계획만 발표한 상태에서 제재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미얀마에 10억 8,280만 달러(미얀마 전체 ODA의 39.1%)를 공여한 일본은 2021년 2월 말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인정하고 폭력진압을 비난하면서 신규 ODA 지원만 보류한다고 발표함.

-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지도 않은 일본은 미얀마 쿠데타 1년 후인 2022년 2월 1일 외무장관 담화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규탄과 민주정치로의 복귀를 촉구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함.²⁸⁾
 - o 실제 일본은 쿠데타 발생 이후에도 미얀마에 대해 코로나19, 난민 등을 위한 무상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이 이처럼 미얀마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배경을 들 수 있으나, 미국이 동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미얀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일부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o 주요 배경: ① 시장과 생산거점으로서 미얀마의 중요성(일본기업의 활동이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② 최대 ODA 지원대상국이었던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ODA 수원자격을 상실함에 따른 새로운 지원대상국으로서 미얀마의 중요성 ③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지속 필요성 ④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역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 다만 일본도 최근 인권침해를 이유로 외국 당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일본판 인권책임법(Magnitsky Act)」 제정을 논의하고 있어 이 법 제정 여부에 따라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제재 방향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음.

3) UN과 국제금융기관

- UN은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미얀마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규탄 결의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난 결의안과 무기매각 정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미얀마 특사도 새로 임명함.
- UN은 군부 쿠데타 직후부터 미얀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규탄 수위를 높임은 물론 제재 부과를 추진했으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반대로 규탄 수위가 낮아지고 한동안 제재를 부과하지 못함.
 - o 이에 따라 2021년 2월 4일 UN 안보리의 언론보도문(press statement), 2월 12일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3월 10일 UN 안보리의 의장 성명 등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약화되거나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음.
- UN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역시 찬성 국가 수 부족으로 한 차례(5월 17일) 무산된 후 2021년 6월 18일 통과됨.
 - o 6월 18일 UN 총회 결의안은 199개 국가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6개 국가가 기권하였고 벨라루스가 유일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²⁹⁾
- UN은 10월 25일 새로운 미얀마 특사로 놀린 헤이저(Noeleen Heyzer, 싱가포르 국적) 전 UNESCAP 사무국장을 임명해 미얀마와의 관계 변화를 추구함.
 - o 놀린 헤이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UNESCAP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미얀마의 사이클론 피해 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한 경험이 있어 미얀마 정부, 아세안, UN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³⁰⁾

28) 日本 外務省(2022. 2. 1), 「クーデター後1年のミャンマー情勢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2. 4).

29) 福地亜希(2021), p. 6.

30) 위의 자료(2021), pp. 6~7.

표 7. UN과 주요 국제기구의 미얀마 제재조치 발표 일정 및 주요 내용

기구	발표 시기	제재 주요 내용
UN	2021년 2월 4일	- 안보리, 쿠데타 규탄 언론보도문(press statement) 발표
	2월 12일	- 인권이사회,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 채택
	3월 10일	- 안보리, 미얀마 상황에 대한 최초의 의장 성명 채택
	5월 17일	- UN 총회,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난과 무기매각 금지 결의안 채택 실패
	6월 18일	- UN 총회,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난과 무기매각 금지 결의안 채택(찬성 119개 국가)
	10월 25일	- 신임 미얀마 특사로 놀린 헤이저 전 UNESCAP 사무국장 임명(기존 특사 Christine Schraner Burgener는 2018년 4월부터 근무)
WBG	2021년 2월 19일	- 2월 1일부로 새로운 차관과 무상원조 일시 중단 발표
ADB	2021년 3월 10일	- 미얀마 정부에 대한 신규 재정지원 중단 선언
IMF	2021년 8월 18일	- 특별인출권(SDR)에 대한 미얀마의 접근 금지

자료: 정재완 외(2021), pp. 4-21 및 각종 언론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미얀마에 대한 최대 다자공여기관인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도 군부 쿠데타를 규탄함과 동시에 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 2021년 3월 2일까지 24개 프로젝트(총 약정금액 27억 3,412만 달러)를 진행하고 15개 프로그램(총 약정금액 16억 7,600만 달러)를 계획 중인 WBG는 쿠데타 발생 당일인 2월 1일부로 미얀마에 대한 차관과 무상원조 제공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힘.³¹⁾
- ADB는 2021년 3월 10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함.
- IMF 역시 미얀마의 IMF 특별인출권(SDR)에 대한 접근을 정지시킴.

나. 아세안의 중재

■ 아세안은 회원국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련의 의장 성명 발표, 외무장관 및 최고위급 회담 개최, 특사 선정 및 파견, 2022년 의장국(캄보디아) 지도자의 미얀마 방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 먼저 아세안은 2021년 2월 1일 당시 의장국(브루나이) 성명과 3월 2일 비공식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아세안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함.
- 아세안은 2021년 4월 24일 흘라잉 군 총사령관이 참석한 아세안 지도자회의를 통해 폭력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포함한 5개 항에 대해 합의하였고, 100여일 후인 8월 초에는 에리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을 미얀마 특사(special envoy)로 선임함.
 - 아세안과 미얀마의 5개 항 합의문(Five-Point Consensus): ① 모든 폭력행위 즉시 중단 및 전체 관계자의 자제

31) 정재완 외(2021), p. 7에서 재인용.

- ② 미얀마 국민의 관점에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간 건설적 대화 시작 ③ 아세안 의장 특사의 대화 프로세스 중재 및 아세안 사무총장의 보좌 ④ 아세안 재난관리·인도지원조정센터(AHA Centre)를 통한 인도적 지원 ⑤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및 모든 관계자와의 면담³²⁾
- 2021년 10월 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정상이 불참한 가운데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family) 자격 재확인, 아세안과의 5개 합의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이행 촉구, 폭력행위의 즉각 중단,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대화 촉구 등을 결의함.³³⁾
 - 이에 앞선 10월 중순 아세안은 긴급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5개 합의사항 이행이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미얀마 정부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해 아세안 지도자회의에 미얀마의 비정치적 인사를 초청할 것을 결의함.³⁴⁾

표 8. 아세안의 미얀마 쿠데타 관련 중재 일정 및 주요 중재 내용

일정	주요 내용
2021년 2월 1일	- 아세안 의장국(브루나이) 성명 발표
3월 2일	- 비공식 외무장관회의 개최(쿠데타 관련 최초) 및 의장 성명 발표
4월 24일	- 아세안 지도자회의,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항 합의
6월 4일	-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 미얀마 방문 및 군 총사령관 면담
8월 4일	- 에리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 미얀마 특사(special envoy)로 선임
10월 16일	- 온라인 긴급 외무장관회의,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정상 참석 배제 결정
10월 26일	- 아세안 정상회의(미얀마 정상 배제), 아세안 회원자격 확인 및 합의사항 준수 촉구
2022년 1월 5일	- 프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 새로운 미얀마 특사로 선임
1월 7일	- 의장국(캄보디아) 훈센 총리 및 프락 소콘 미얀마 특사, 미얀마 방문 및 군총사령관 면담
1월 26일	- 의장국 훈센 총리, 군 총사령관과 온라인 면담
2월 2일	- (쿠데타 1년 경과) 미얀마 정세에 관한 의장 성명 발표

자료: 정재원(2021, p. 8); 정재원 외(2021, pp. 4~21); 각종 언론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22년 들어 아세안 의장국을 승계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1월 초 미얀마 특사인 프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하고 흘라잉 군총사령관을 면담하였으며, 1월 말에도 화상회담을 가짐.
 - 훈센 총리와 흘라잉 군 총사령관은 ① 아세안과의 5개 합의사항 이행 ② 아세안 특사의 1차 방문 지원 ③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자제, 폭력 중단, 휴전, 소통 확대 등 촉구 ④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원 요청 등 4개 항에 합의함.³⁵⁾
- 아세안은 군부 쿠데타 발생 1년 후인 2월 1일에도 의장 성명을 통해 미얀마 내 폭력행위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2021년 아세안과 합의한 5개 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함.³⁶⁾

32) ASEAN Secretariat(2021a), p. 4.

33) ASEAN Secretariat(2021b), pp. 26~27.

34) Ain Bandial(2021. 10. 17), "ASEAN excludes Myanmar junta leader from summit in rare mov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7); 정재원(2021), p. 8에서 재인용.

3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Cooperation (Kingdom of Cambodia)(2022), p. 2.

36) ASEAN Secretariat(2022), p. 1.

■ 아세안의 조치 중 미얀마와의 5개 항 합의, 미얀마를 배제한 정상회의 개최, 의장국 총리의 방문과 연이은 회담 개최 등은 전례가 없는 아세안의 적극적인 행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비판적 시각 역시 많은 것도 사실임.

- 미얀마 군부와의 5개 항 합의사항은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구금자 석방 등 중요하고 실제적인 내용이 빠졌고 실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아세안이 사태 해결에 필요한 긴 여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5개 항 중 특사 선임, 인도적 지원, 특사의 미얀마 방문은 이행이 비교적 쉬울 수 있으나, 나머지 2개(폭력행위 중단 및 자제, 당사자간 건설적인 대화)의 경우 군부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게다가 비교적 쉬울 것으로 생각되던 특사 임명의 경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고, 회원국간 의견 불일치로 선임 자체에 의미를 두는 단계에 머무름.

- 미얀마 군부 측을 배제한 정상회의 개최는 내정불간섭을 철칙으로 여겨온 아세아의 입장에서는 '건설적 관여를 위한 실제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반면 훈센 총리의 2022년 1월 미얀마 방문과 뒤이은 온라인 정상회의 개최는 캄보디아가 비록 의장국이지만 독단적인 행태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나,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표출되고 있음.

- 특히 훈센 총리가 역내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것과 군부의 정권이양 로드맵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군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거나 인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함.
- 반면 교착상태인 아세안과 미얀마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기회 또는 대화의 기반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라는 평가도 존재함.

- 전체적으로 보면, 아세안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성과 여부를 떠나 전통적으로 포용정책을 선호하며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해온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과거 태국 사례와 달리 실제 건설적 관여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구체성과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 아세안은 2014년 태국 쿠데타 발생 당시 인도네시아 주도로 사태 해결을 시도했으나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얀마 쿠데타의 경우 성과 여부를 떠나 일부 진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이러한 노력은 회원국인 미얀마의 고립화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아세안의 결속과 통합 흐름 유지, 아세안의 존재감과 자체 해결능력 과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아세안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미얀마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아세안의 단결력과 중심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아세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

■ 다만 아세안의 이러한 노력과 관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아세안을 통한 미얀마 사태의 해결 가능성은 최근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과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지 않음.

- 아세안의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특사 선임 외에는 미얀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임.
- 게다가 아세안은 헌장(ASEAN Charter)이 규정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여전히 강하게 신봉하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쿠데타나 폭력사태 또는 대규모 인권탄압 시 이를 전담하고 해결할 지역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역내의 시각차가 뚜렷하고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큰 난제를 안고 있음.
 - 10개 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의 경우 국가별 정부 형태나 정치상황, 특히 권위주의 정부 혹은 독재성향의 정부와 민주정부 사이, 국내의 긴박한 정치 상황, 임박한 선거, 국가지도자 성향 등의 차이로 공통된 입장을 정립하거나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음.
- 게다가 미얀마 군부가 제시한 5개 항 로드맵과 아세안이 합의한 5개 항의 불일치 문제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특히 미얀마 군부는 선거위원회를 통한 2020년 11월 선거의 무효화 및 기존 정당 무력화, 주요 인사에 대한 구금 장기화, 선거제 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이나 국제사회의 의도와는 괴리가 있음.

다. 중국·러시아·인도의 제재 반대

- 미얀마의 군부 및 민주주의 세력 모두와 우호관계임을 강조하는 중국은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미얀마 제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UN의 미얀마 제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미얀마 제재나 규탄에 동참하지 않거나 관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2월 4일 UN 안보리의 쿠데타 규탄 언론보도문 작성, 3월 10일 UN 안보리의 쿠데타 관련 의장 성명 채택, 5월 17일과 6월 18일 UN 총회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난과 무기금수 결의안 채택 등에 대한 반대나 불참을 들 수 있음.
-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미얀마 군부 측 및 민주주의 세력 모두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 내정불간섭 우선, 국제사회 행동의 조건으로 미얀마 사회 안정에 대한 기여, 아세안의 역할 증대 등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 특히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21년 3월 말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과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입장으로 3대 지지(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안정을 구하려는 미얀마 국내관 계자 지지,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입장 지지,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3대 회피(새로운 유혈 충돌 회피, 민간인 희생자 회피, 미얀마 정세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회피) 원칙을 제시함.³⁷⁾
- 중국의 이러한 자세는 중국이 미얀마와 전통적으로 우호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형제국가임을 자처하는 데다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의 전

37) 日本貿易振興機構(2021. 4. 6), 「中国の王毅外相、ミャンマー情勢に関するASEAN緊急首脳会合の開催支持」,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5).

략적 요충지라는 점, 아세안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중국은 미얀마와 경제회랑(CMEC)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2020년 1월 시진핑 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중국-미얀마 운명공동체 건설’을 선언하고 33개 항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1월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다시 방문해 ‘중국·미얀마 경제협력발전 5개년 계획’, ‘중국·미얀마 기술협력협정’, 철도 연결사업 관련 MOU 등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³⁸⁾

■ 주요 무기 공급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제재를 반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미얀마와의 군사 분야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쿠데타 발생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제재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2021년 6월 20일 흘라잉 군 총사령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함.
- 특히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미얀마의 2대 무기수입국이라는 점, 러시아 방문 직전인 6월 18일 UN 총회가 미얀마 군부에 무기금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 흘라잉 군 총사령관의 러시아 방문 목적이 모스크바국제안보컨퍼런스(MCIS) 참석과 러시아 국방안보 책임자와의 만남(국방장관과 연방안전보장회의 서기)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국 관계의 주목적은 군사협력 확대인 것으로 보임.

■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인도는 미얀마 및 아세안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유지 및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측면과 QUAD 참가국이라는 보편적 측면에서 이중적 자세를 취하며 미얀마 사태를 관망하는 상황임.

- 인도는 기본적으로 수찌 정부와 NLD를 지지하며 경제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온 한편,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아·태 지역 내 인도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얀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옴.³⁹⁾
- 쿠데타 발생 후 인도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또 미국 주도의 QUAD에 참가하고 있으나 미국 주도의 미얀마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음.
 - 인도는 1990년대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미국 주도의 미얀마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음.
- 특히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입장에서는 미얀마를 포함한 아세안의 지정학적 중요성 고려,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 견제, 자국의 영향력 유지 필요 등의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38) 정재완 외(2021), p. 13에서 재인용.

39) 위의 자료(2021), p. 19.

4. 주요 경제 동향: 극심한 부진 속 완만한 회복세

가. 주요 경제정책

■ 쿠데타 직후 군부는 경제 분야 3대 정책목표로 ① 현대적 기술을 통한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 부문 육성 ② 외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경제발전 모색 ③ 고용창출 및 국내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내산업 진흥을 발표함.⁴⁰⁾

■ 과도정부는 부진의 늪에 빠진 경제를 재건하고자 새로운 경제개발정책으로 '미얀마 경제회복계획(MERP: Myanmar Economic Recovery Plan)'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MERP는 수찌 정부가 2018년 수립한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과 2020년 10월 발표한 '미얀마 경제 회복 및 혁신계획(MERRP)'을 기반으로 하되,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상사태 선언 이후 급격히 위축된 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MSDP는 '평화롭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미얀마'를 비전으로 하고 정치·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종합개발계획임.⁴¹⁾

○ MERRP는 수찌 정부가 2020년 4월 발표한 코로나19 경제구제계획(CERP)을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임.

- MERP는 10개의 행동계획(action plan), 27개의 기대목표(expectation), 407개의 세부 실행계획(action line)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⁴²⁾

○ 주요 내용으로 ① 농림수산업 및 관광 분야 활성화 ② 세제 혁신, 규제개혁, 정부서비스 부문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및 비즈니스 신뢰도 제고 ③ 금융 및 환율 안정 등이 포함되나, 수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국유기업과 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짐.⁴³⁾

■ 반면 미얀마 과도정부는 쿠데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시기별·지역별로 강화했을 뿐 지원을 포함한 재정적인 대책은 거의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한 재정은 2021년 11월 15일 기준으로 9,864만 달러로, 이는 GDP(2020년)의 0.02%에 불과함.⁴⁴⁾

○ 이는 같은 시기 베트남(GDP의 7.92%)과 캄보디아(GDP의 8.41%)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수찌 정부 당시의 지원이었음.

40) KOTRA(2021), p. 6.

41) 정재완, 김미림(2018), p. 5.

42) John Liu and Frontier(2021, 9. 17), "Regime seeks economic recovery, but drops NLD reform agenda,"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9).

43) Dominic Oo and John Liu(2021, 10. 20), "Investors Spooked by Myanmar Crisis as Economy Braces for Free Fall,"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9).

44) ADB Covid-19 Policy Database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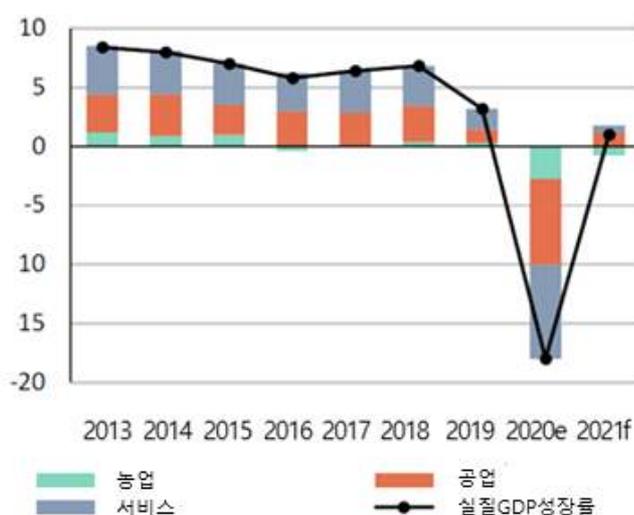
나. 주요경제지표 변화

■ [GDP 성장률] 미얀마의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일부 받은 2019 회계연도(2019. 10~2020. 9)⁴⁵⁾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쿠데타가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020 회계연도(2020. 10~2021. 9)에는 마이너스 18%로 악화됨.

- 2019 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고용 및 생산 환경 악화, 소득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년의 절반인 3.2% 성장에 그침.
- 2020 회계연도에는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2020. 9~2021. 1, 2021. 7~11)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고용 및 생산 환경 악화, 소득 및 투자 감소가 더욱 심해진 데다가 2021년 2월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 지속, 시민과 공무원 등의 CDM에 따른 국가기능 마비, 물류 정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의 빈번한 차단, 금융 혼란, 소비 위축,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 저조 등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미얀마 경제규모(실질 GDP)는 2020 회계연도에는 전 회계연도 대비 15% 정도 축소되었으며, 코로나19와 쿠데타라는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면 30% 정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⁴⁶⁾

그림 4. 미얀마의 실질 GDP 성장률 및 분야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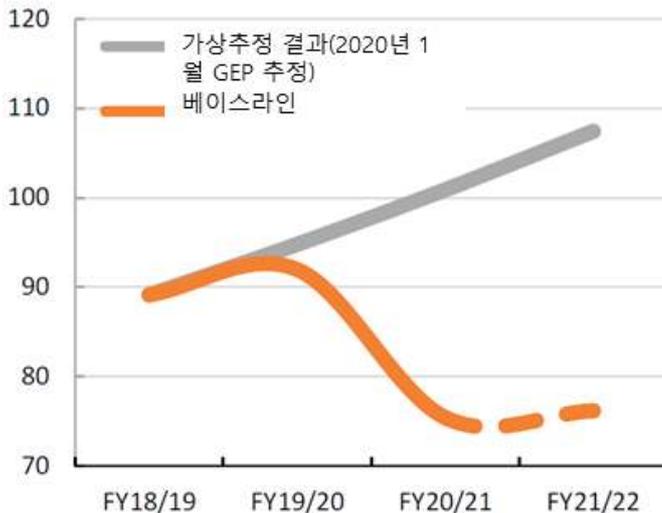
(단위: %, %p)



자료: World Bank(2022), p. 10.

그림 5. 미얀마의 실질 GDP 추정

(단위: 조 꺾)



자료: World Bank(2022), p. 10.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쿠데타 이후 극심하게 혼란했던 경제생활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2021 회계연도(2021. 10~2022. 9)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45) 미얀마 수찌 정부는 2017년부터 회계연도를 '4월~이듬해 3월'에서 '10월~다음해 9월'로 변경해 2019 회계연도부터 사용하였으나, 군부는 다시 과거 회계연도(4월~이듬해 3월)로 회귀하고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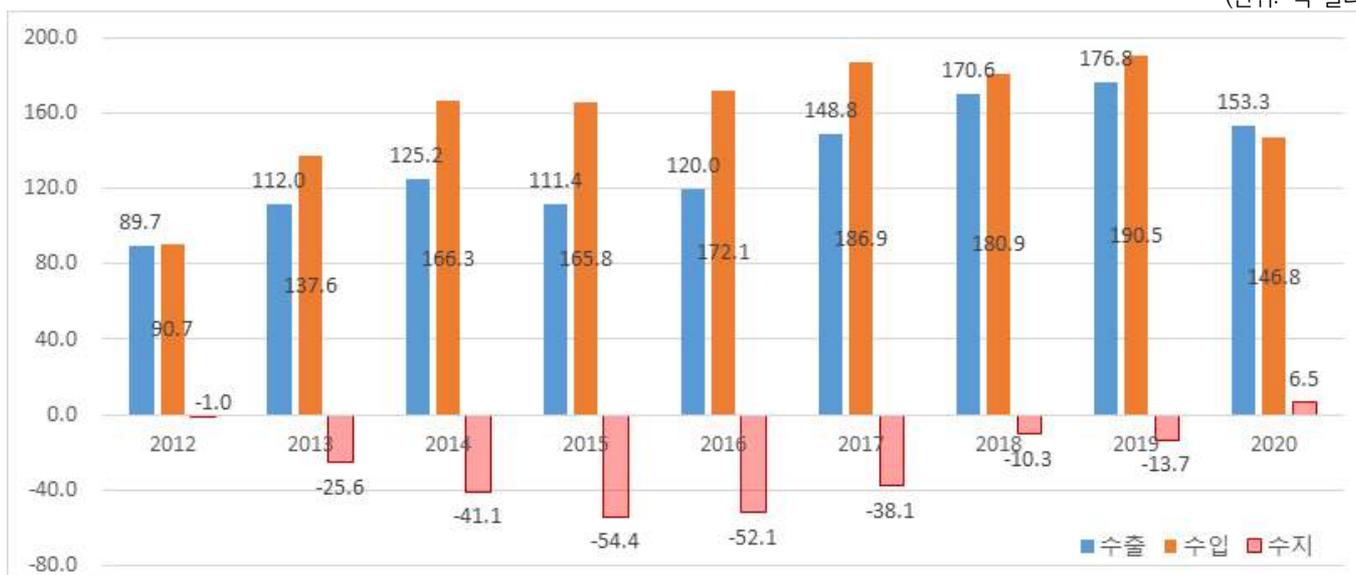
46) World Bank(2022), p. 9.

■ [대외무역] 2015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미얀마의 대외무역은 2017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증가율이 낮아졌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 여파로 2020 회계연도에는 대폭(-18.3%) 줄어들었으며, 그동안 이어져오던 무역수지 적자 기조도 수입 감소에 따라 소폭 흑자로 전환됨.

- 2020 회계연도에 수출이 13.3% 감소한 배경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CDM에 의한 생산 및 물류 환경 악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감소, 국경무역 제한 등을 들 수 있음.
- 수입의 경우 22.9% 감소하였는데, 이는 △ 코로나19와 CDM에 의한 내수 및 물류 환경 악화 △ 수출 부진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 △ 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감소 △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 △ 군부의 외화유출 억제를 위한 수입허가제 실시 △ 연이은 국경 봉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외화유출 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입허가제 대상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 2월 4일 기준 1만 1,167개에 달함.⁴⁷⁾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CDM 등으로 악화된 물류환경은 2021년 말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고, 국경무역 역시 2021년 말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짐.

그림 6. 미얀마의 회계연도별 대외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2018 미니 회계연도(2018. 4~9) 데이터는 제외.

자료: Ministry of Commerce(Myanmar)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0).

■ [외국인투자]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FDI)는 2015 회계연도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쿠데타가 발생한 2020 회계연도 역시 전년에 비해 22% 줄어든 37억 9,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LNG 발전에 대한 대형 투자 1건(25억 달러)을 제외하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의하면, 대미얀마 투자는

47) KOTRA 양곤무역관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9).

2019 회계연도에 싱가포르(18.6억 달러), 홍콩(14.2억 달러), 중국(5.5억 달러), 영국(4.3억 달러)이, 2020 회계연도에는 영국(25.1억 달러), 일본(5.2억 달러), 싱가포르(4.3억 달러), 중국(1.8억 달러) 등이 주도함.⁴⁸⁾

- 미얀마에 대한 FDI 감소세는 2016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로힝자족 문제와 수찌 정부의 미진한 개혁개방이 큰 배경이며, 2020 회계연도의 경우 코로나19와 쿠데타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쿠데타 이후 군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미얀마 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면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기업이 많아진 것도 큰 배경으로 작용함.

그림 7. 회계연도별 FDI 유치(허가 기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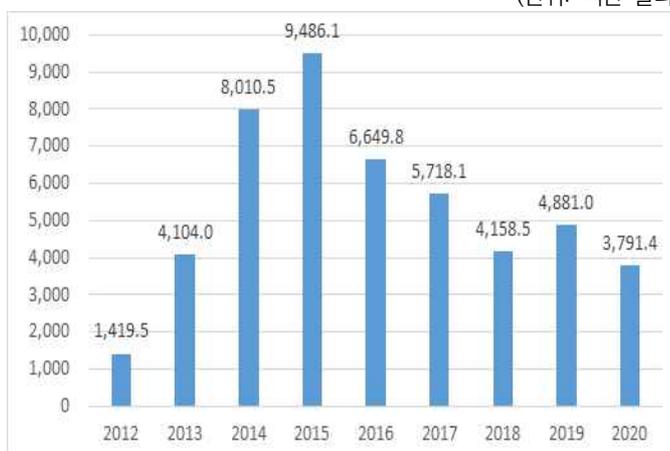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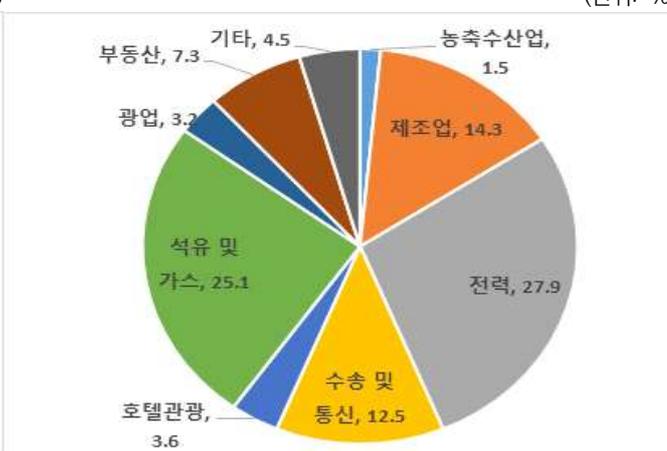


그림 8. 업종별 FDI 유치 구조(2021. 12. 31 누적기준)
(단위: %)



주: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2018 미니 회계연도(2018. 4~9) 데이터는 제외.

자료: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0).

- 2021년 말까지 대미얀마 FDI(허가 기준)는 전력과 석유·가스 부분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제조업, 수송 및 통신 등에 많이 투자됨.
 - 누적기준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싱가포르(244.6억 달러), 중국(216.6억 달러), 태국(115.1억 달러), 홍콩(97.8억 달러), 영국(74.7억 달러), 한국(41.2억 달러) 순임.⁴⁹⁾

■ [제조업] 미얀마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코로나19와 쿠데타 여파로 크게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분야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을 의미함.

- 제조업 PMI는 3차에 걸친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년 4월 전후, 2020년 9월~2021년 1월, 2021년 7~11월)와 쿠데타 발생 초기(2021년 2~5월)에 급격히 낮아졌다가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미얀마의 제조업 PMI는 생산과 고용 부분이 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주변 아세안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얀마의 제조업 PMI는 많이 낮으나 최근에는 빠르게 올라가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48)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0).

49) Ibid.

그림 9. 미얀마의 최근 월별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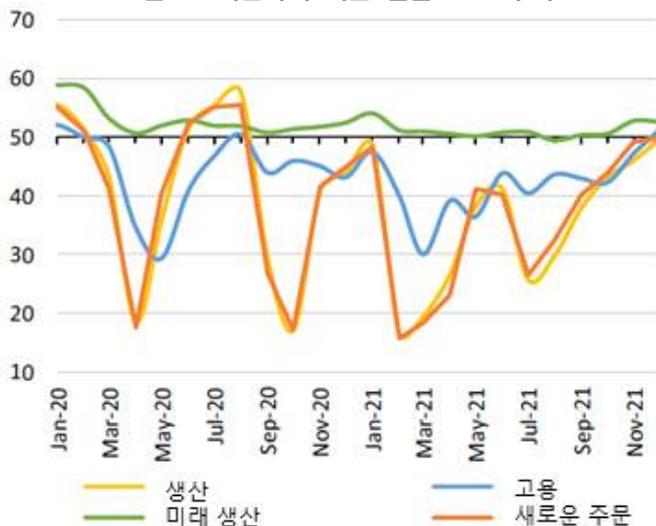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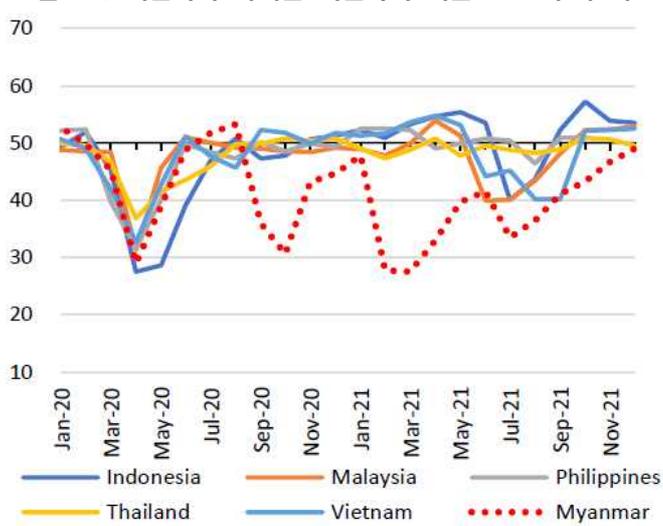


그림 10. 미얀마와 아세안 회원국의 최근 PMI 추이 비교



자료: World Bank(2022), p. 23.

- 특히 2021년 12월의 제조업 PMI는 49.0을 기록, 쿠데타 직전인 2021년 1월의 47.8을 넘어섰는데,⁵⁰⁾ 이는 제조업 부분의 정상화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음.

■ [환율] 미얀마 찻(Kyat)화의 대달러 정부 공식 환율은 쿠데타 이후 빠르게 상승세를 지속해 한때는 2,000선에 육박했다가 이후 하락, 1,770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 시장환율과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중앙은행 기준 환율은 쿠데타 직전(2021년 1월 29일) 1,331.2였으나 코로나19의 3차 확산기인 2021년 10월 초에는 1,986.4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낮아져 1,770대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11 참고).
 - 쿠데타 발생으로 인한 환율변화율(2021년 1월 31일 기준)은 2021년 상반기까지 10~20%대를 보이다가 6월 말 이후 20%대, 9월 초 이후 30~40%로 높아졌다가 이후 30%대를 유지함.
- 찻화 가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제재와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에 따른 외화유입 감소, 자국통화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한 달러화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수찌 정부 당시 도입한 환율제도(중앙은행이 은행간 거래와 시중은행의 외화매매가격을 계산해 참고환율을 발표)를 유지해온 군부는 쿠데타 이후 찻화 가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관리 변동제도 일시 도입(8월 3일~9월 11일) 등을 실시하였고,⁵¹⁾ 2021년 12월 중순 이후로는 중앙은행의 참고환율을 1,778에 고정시킨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환전상은 중앙은행의 참고환율에 $\pm 0.8\%$ 의 범위 내에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했지만, 많은 환전상이 제한폭을 넘는 거래를 계속하면서 이중환율 구조가 나타남.⁵²⁾⁵³⁾

50) Kay Thwe Oo(2022. 2. 3), 「국가 비상사태 1년 후 미얀마의 경제 상황과 전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9).

51) 福地亜希(2021), p. 15.

52) みずほ銀行 国際経済情報部(2021), p. 2.

53) 알레로 2021년 9월 말에는 정부의 공식 환율이 1달러당 1,900대를 형성하였으나, 시장 환율은 3,000대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짐(福地亜希 2021, p. 15).

그림 11. 코로나19 팬데믹 및 쿠데타 이후 찻화의 대달러 환율 변화 추이(2020. 1. 2~2022. 2. 9.)



자료: Central Bank of Myanmar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0)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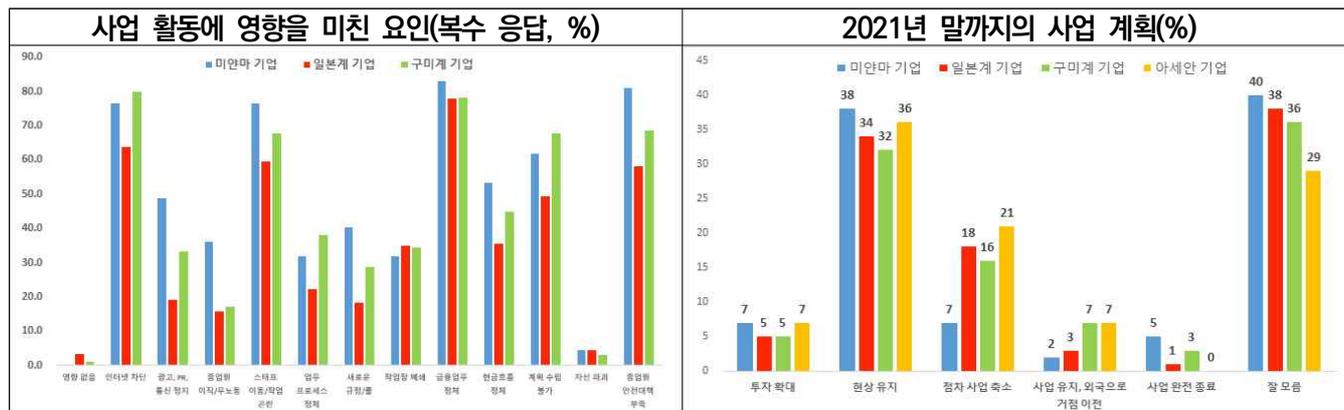
- 참고환율에 의한 거래는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간 거래량이 감소하고 찻화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후 4개월 내 찻화로의 환전 의무화(9월 3일), 관리변동제도 폐지(9월 11일), 기업의 찻화 환전 의무화 기간 30일로 단축(10월 3일) 등의 실시로 중앙은행의 자국 통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찻화 가치가 하락이 멈추고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도 축소됨.⁵⁴⁾

다. 현지 진출기업의 움직임

- 쿠데타 발생 초기 미얀마에서 사업하던 기업(미얀마 기업 포함)은 비즈니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쿠데타를 이유로 사업의 일부를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완전 철수하기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더 많이 보였음.
 - 2021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유럽, 일본, 미얀마와 아세안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데타 초기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금융 마비, 인터넷 차단, 종업원 안전대책 부족, 스태프의 이동이나 작업 곤란, 계획 수립 불가 등의 측면에서 특히 많은(절반 이상 기업)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국적별로 전체 기업의 32~38%는 현상 유지, 7~21%는 점차 축소를 선택한 반면, 외국으로의 일부 이전이나 완전 철수를 선택한 기업은 전체의 4~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54) みずほ銀行 国際戦略情報部(2021), p. 2.

그림 12. 쿠데타 직후 현지 진출기업 설문조사



주: 미얀마에 진출한 10개국 상공회의소가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자료: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Myanmar(2021), p. 25, p. 28.

■ 쿠데타가 발생한 지 7개월 정도가 지난 2021년 8~9월 시점 미얀마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업이익의 악화나 적자 확대, 체감경기 대폭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려는 의향을 보임.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미얀마 진출 일본계 기업(162개)을 대상으로 2021년 8~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63.6%는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전체의 72.1%는 ‘2021년 영업이익이 적자(2020년 조사에서는 56.7%)가 될 것’이라고 답해 사업성의 악화를 짐작할 수 있음.⁵⁵⁾
- 미얀마의 2021년 체감경기(Diffusion Index)는 마이너스 54.9p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에는 0.6p로 많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⁵⁶⁾
- 일본계 기업들은 향후 1~2년의 사업방향에 대해 확대 13.5%, 현상유지 52.3%, 축소 27.5%, 제3국으로의 이전이나 철수 6.7%로 답해 전체의 2/3가 미얀마에서의 비즈니스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2020년 조사 당시의 47.3%, 42.3%, 10.0%, 0.5%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⁵⁷⁾
- 비즈니스 애로사항으로는 현지통화의 대달러 환율 급변,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부진, 대외송금 규제, 근로자의 낮은 숙련도, 거래선의 발주량 감소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쿠데타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함.⁵⁸⁾

■ 2021년 초의 쿠데타와 제3차 코로나19 확산(2021년 7~11월)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사회경제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미얀마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서서히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 및 강화, 외환 부족, 사업성 악화, 인권 강조 흐름 등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 중단이나 철수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한 기업이 40여 개에 이르는데, 이들 기업의 국적은 미

55) 三木貴博(2021. 12. 9), 「ミャンマー進出日系企業調査結果 政変後も7割近くは縮小・撤退せず」,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11).

56) 위의 자료

57) 위의 자료

58) 위의 자료

국,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구미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다양하며, 업종 역시 부동산, 전력, 자원, 프랜차이즈, 식음료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특히 일본의 Kirin(맥주)과 Toyota(자동차), 노르웨이의 Telenor(통신, 핀테크), 프랑스의 TotalEnergies(가스), 미국의 Chevron(가스), 독일의 Metro(소매) 등 다양한 기업이 포함됨.

표 9. 쿠데타 발생 이후 다국적기업의 미얀마 투자 중단 또는 철수 사례(2022년 2월 22일 기준)

기업	국적	공표/보도 시기	주요 내용
Amata	태국	2021년 2월	공단 개발계획(10억 달러) 동결
Kirin Holdings	일본	2021년 2월	맥주사업 현지합작선 MEHL과 합작(지분 51%) 해소를 위한 협의 시작
		2022년 2월	미얀마 사업 철수(2022년 6월까지 지분 제3자 매각) 결정
Lim Kaling	싱가포르	2021년 2월	Virginia Tobacco Group(MEHL이 과반 출자)의 투자증액 검토
Toyota	일본	2021년 2월	2021년 2월 예정이었던 신공장(5,260만 달러) 가동 연기
Electricite de France	프랑스	2021년 3월	마루베니 포함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15억 달러) 중단
Petronas	말레이시아	2021년 4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OGE) 및 JX석유개발 등이 보유한 예타곤 가스전 생산 중단
AEON	일본	2021년 5월	현지 재벌과 합작으로 추진한, 2021년 여름 예정이었던 쇼핑몰 착공 연기
Hong Kong Shanghai Hotel	홍콩	2021년 5월	양곤에 페닌슐라호텔 건설계획(1.3억 달러) 연기
Ant Financial(Alibaba)	중국	2021년 5월	핀테크 분야 투자(7,350만 달러) 철회
KOI	대만	2021년 6월	KOI bubble tea shop 폐쇄
Bridgestone	일본	2021년 6월	타이어용 고무 생산 중단
Mitsubishi Corporation	일본	2021년 7월	현지 딜러와의 합작에 의한 타이어 판매사업 철수(7월 말 사업 정지)
		2022년 2월	예타곤 가스전 합작사업 지분 매각 결정
Telenor	노르웨이	2021년 7월	미얀마 사업을 레바논계 미얀마 기업 M1에 매각 방침(매각액 1.05억 달러)
Auntie Anne's	미국	2021년 8월	프리첼 소매상, 2년간 지점 운영 중단
Metro	독일	2021년 9월	2021년 10월 말까지 식자재 공급(3,300개 품목) 중단 결정
British American Tobacco	영국	"	2021년 말까지 사업 정지 및 철수 표명
Adani Group	인도	2021년 10월	계획 중인 양곤 항만 개발 2022년 6월까지 중지 결정
British American Tobacco(BAT)	영국	2021년 10월	2021년 말까지 사업 철수 방침
Kempinski Hotel	스위스	2021년 10월	당분간 사업 정지 발표
Wave Money (Telenor 자회사)	노르웨이	2022년 1월	Wave Money(미얀마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지분 51%(5,300만 달러)를 Yoma Strategic Holdings에 매각
TotalEnergies	프랑스	"	공동 출자(Total 31.2%, Chevron 28.3%, PTT 25.5%, MOGE 15%) 중인 야다나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철수 방침 발표
Chevron	미국	"	(5월에는 주주배당 중지 발표)
Woodside Petroleum	호주	"	- A-7광구(지분 45%) 계약 종료(2021년 9월 30일) - A-1, A-8, A-6 광구사업 철수
Royal Dutch Shell	네덜란드	시점 불특정	미얀마 내 전체 라이선스 반납
Sembcorp	싱가포르		산업단지(2억 3,000만 달러) 개발 잠정 중단
Myanmar Metals	호주		Bawdwin 프로젝트(광업) 지분(51%) 매각 발표
VPower Group	홍콩		9개 전력 프로젝트 중 2개 철수 발표

Yokogawa Bridge & Sumitomo Mitsui	일본		양곤 근교 교량 건설 사업 중단
Tokyo Tatemono & Fujita			양곤 재개발사업(Okura Nikko Hotel, 4,940만 달러) 중단
Marubeni, Sumitomo & Mitsui			LNG 발전 프로젝트 개발 중단

자료: 福地亜希(2021), p. 22; World Bank(2022); Gwen Robinson(2022. 1. 3), "Telenor to divest Wave Money, exit Myanmar mobile banking,"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28)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투자 중단이나 철수의 배경으로는 대개 사업성 악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 및 강화 가능성, 미얀마 내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 확대, 특히 군부의 자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한 주요 군부계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미얀마 최대 기업그룹이자 군부계 기업인 미얀마경제공사(MEC)와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L)는 보험, 통신, 타이 어, 맥주, 담배, 보석, 호텔, 철강, 기계 등의 분야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어 초기 미얀마에 투자하는 많은 기업은 이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미얀마 석유가스공사(MOGE)는 석유와 가스를 독점하며 군부 최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협력 파트너인 다국적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쿠데타 이후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지원 중단 및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중단 등으로 미얀마 내 많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또한 중단되고 있음.

- 다만 중국과 일본이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원하는 짜옥푸(Kyauk Phyu) 경제특구 프로젝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지원하는 양곤(Yangon)-판린(Thanlyin) 교량과 양곤-만달레이 철도개선 프로젝트 등이 있음.⁵⁹⁾

5.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미얀마 정세 전망

- 향후 미얀마의 정치사회는 이중 정부에 의한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부의 정권 장악력이 더욱 높아지는 반면 민주진영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이러한 상황은 총선 이후 또 다른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나 떼잉세잉(Thein Sein) 정부 당시의 규율 민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내부적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없는 가운데 군부가 제시한 로드맵이 2023년 총선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군부의 정권 장악력은 높아지고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과 와해공작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 반면 시민사회나 민주진영의 활동은 약화되고 특별한 구심점이 없는 NLD 진영 또한 와해될 가능성이 커졌으

59) Kay Thwe Oo(2022. 2. 3), 「국가 비상사태 1년 후 미얀마의 경제 상황과 전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9).

나, PDF의 무장투쟁은 일부 소수민족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함.

- 쿠데타 이후 군부는 주요 민주진영 인사에 대한 탄압과 피선거권 박탈, 새로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주요 민주진영 정당 해산이나 와해, 군부계 정당(USDP)에 대한 지원이나 신규 정당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비록 군부가 양곤과 네피도를 포함한 주요 도시와 평야지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PDF를 비롯한 무장세력과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의 연대를 통한 무장투쟁은 북부와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이후는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거나 다른 형태의 군부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의를 반영하는 정권 수립이나 쿠데타 직전 정권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2023년 중반의 총선은 태국과 비슷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사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면서 군부의 기득권을 유지한 떼잉세잉 정부로의 회귀를 의미함.
 - 이 경우 이에 반대하는 민주진영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가 이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는 별개 문제임.
 - 과거 사례와 같이 과도정부가 총선을 연기하고 장기간 집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경우 미얀마의 민주화는 더욱 요원해지며 시민들의 피해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군부 쿠데타가 미얀마의 가장 오래되고 어려운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뒤흔든 것은 물론이고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명백한 사실임.⁶⁰⁾
 - 쿠데타는 수십 년간 이어져오던 소수민족과의 평화교섭 과정과 일부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PDF와의 무장투쟁을 새롭게 촉발시킨 것은 물론, 분쟁관계를 양자(군부-소수민족)에서 삼각관계(군부-소수민족-PDF)로 변화시킴으로써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과 EU 주도의 제재가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중단이나 철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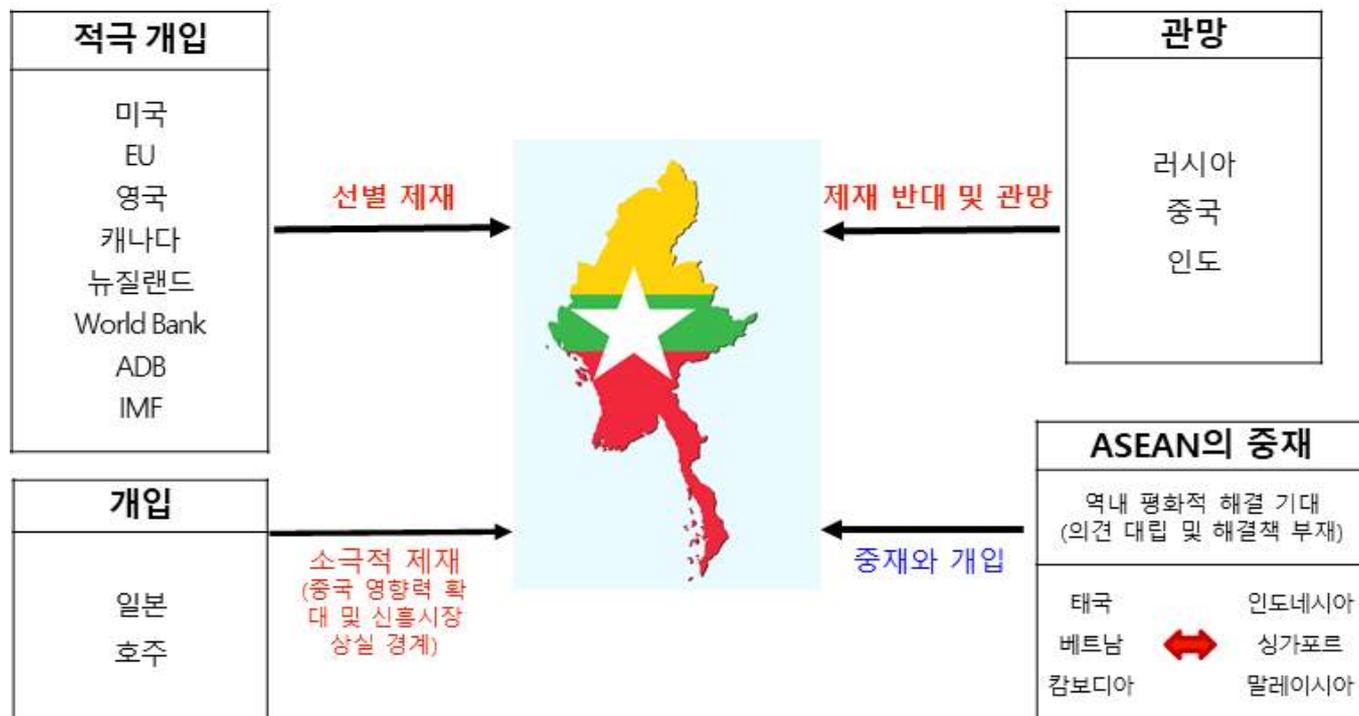
- 미얀마 상황의 지속 또는 악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제재나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전면적인 제재와 강력한 개입보다는 현재와 같이 선별적 제재의 확대·강화 또는 소극적 개입의 확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그림 13 참고).
 - 미국은 과거 1990년대~2010년대 초반과 같은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부 인사나 군부계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확대하고 있으며, EU도 전면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임.⁶¹⁾
 - UN을 통한 제재나 개입도 UN 안보리의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음.
- 특히 향후 미국의 선별제재는 군부의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는 군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중단 또는 사업 철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얀마는 주로 천연가스, 외국의 원조, 광업, 통신료, 보석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며(그림 14 참고), 그

60) International Crisis Group(2022), p. i.

61)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는 2021년 5월 미얀마의 봉쇄업이 고용-소득 등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이유로 자국 내 사업 및 무기 이외의 전 품목(Everything But Arms)을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GSP 적용 지속의 의의 등을 주장했으며, EU 의회 역시 10월 7일 EU 위원회에 대해 미얀마에 대한 '선별적 경제제재의 강화를 요구한 바 있음(福地亜希 2021,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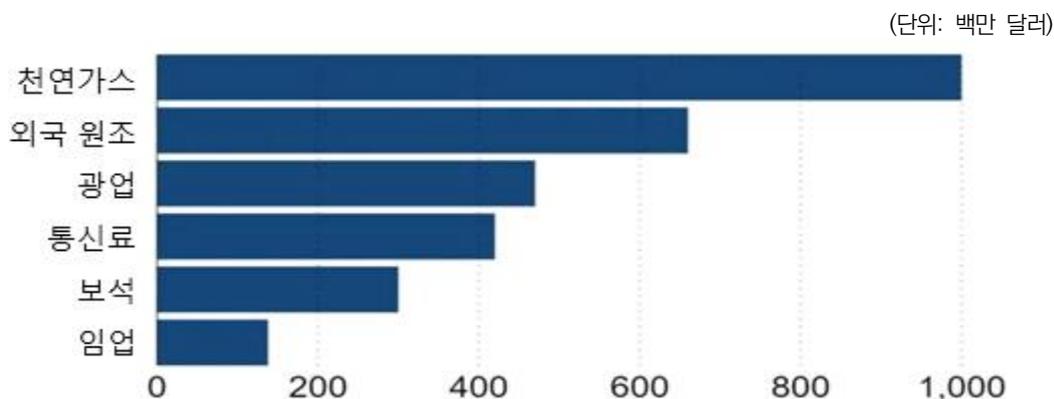
중 보석(jade and gems)은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데다가 군부 고위층이나 군부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관련 분야를 합하면 연간 수십억 달러를 군부에 제공하는바,⁶²⁾ 미국은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강화해왔음.

그림 13.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 구조



자료: 정재원(2021), p. 11을 토대로 일부 수정

그림 14. 미얀마의 분야별 연간 외화획득 구조 및 규모



자료: Gwen Robinson(2021. 4. 29), "Myanmar economists urge curbs on junta's hard currency acces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12).

62) 미얀마의 보석을 통한 수익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간 공식 수출은 2억 5,000만 달러에서 18억 달러이나 2014년에는 관련 품목을 합해 총 1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UN Comtrade가 집계함(Gwen Robinson 2021. 4. 29, "Myanmar economists urge curbs on junta's hard currency acces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2. 2. 12).

- 미얀마 최대 기업그룹이자 군부계 기업인 MEHL과 MEC의 경우 2015년 기준 각각 45개와 61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⁶³⁾ 이들은 수많은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함.
 - 최근 프랑스 TotalEnergies와 미국 Chevron 등은 사업실적 악화, 인권단체와 NGO의 압박 강화, 기업평판 악화 등은 물론 제재 확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얀마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Chevron 등이 그동안 제재 반대를 위한 로비를 벌여왔다⁶⁴⁾는 점에서 군부 최대 자금출인 MOGE가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짐.
 - EU 의회가 2021년 10월 제재 강화 요구 당시 구체적인 추가 제재대상으로 언급한 대외무역은행(MFTB)과 투자 상업은행(MICB)⁶⁵⁾ 역시 외화획득 창구라는 측면에서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큼.
- 게다가 미국이 2022년 1월 26일 미얀마 군사정권과의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해 인권침해, 자금세탁, 아동 및 강제 노동 등에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비록 새로운 제재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제재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임.

■ 향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중재 노력은 의장국 교대(브루나이→캄보디아)와 미얀마 특사 교체 선임(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 등으로 다소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계 역시 뚜렷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22년에도 아세안은 지난 2021년 4월 합의한 5개 항 합의문을 중심으로 중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5개 항 중 사태 해결의 핵심인 폭력행위 중단 및 자제, 당사자간의 건설적인 대화는 미얀마 군부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도정부가 당사자의 한 축인 민주진영 주요 인사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군부 자신의 로드맵 이행을 강행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전통적인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강한 집착, 역내 뚜렷한 시각차와 단결력 부족, 새로운 의장국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독단적 해결 노력과 이에 대한 역내 반발 등은 아세안의 중재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2020 회계연도(2020. 10~2021. 9)에 격심한 침체를 겪은 미얀마 경제는 2022년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변수로는 정치·사회적 혼란 지속 또는 확산,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 또는 확대, 2023년 실시될 총선을 둘러싼 혼란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 과도정부의 경제 개혁개방은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더 나아가 같은 군부계 정권이었던 떼잉세잉 정부와 같이 더욱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큼.
- 2022 미얀마 경제는 코로나19와 쿠데타로 침체된 국면을 벗어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 플러스 성장세를 실현할 가능성도 있으나, 속단하기는 이룸.
 - World Bank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2022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미얀마를 제외하고 있는바,⁶⁶⁾ 본격

63)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2019), p. 24.

64) Sebastian Strangio(2022. 1. 21), "France's Total Backs Sanctions on Myanmar Oil and Gas Revenu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25).

65) 福地亜希(2021), p. 7.

66) World Bank Group(2022), p. 71.

적인 경제회복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 대외무역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상대국의 수요 부진, 대외 신인도 하락, FDI 부진, 외환 규제 지속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외국인투자도 사업성 악화, 제재 지속 또는 확대 가능성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반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소극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 등과의 경제협력은 다소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확대메콩유역개발협력프로그램(GMS)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쿠데타 발발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한편 아세안의 중재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지속하거나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평화적 해결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신규 개발협력을 재검토(인도주의적 지원 제외)하는 제재조치도 발표함.
-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계기 공동 성명 발표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가하고, 또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약속한 점은 큰 의미가 있음.⁶⁷⁾

■ 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얀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신흥시장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미얀마 정세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토대로 한 시나리오별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정부 이후를 내다보는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 초기 개발도상국인 미얀마는 5,480만 명의 내수시장, 풍부한 자연자원,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 등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46.2%인 36억 명(중국, 인도, 아세안, 방글라데시)과 국경을 맞대는 전략적 요충지임.⁶⁸⁾
- 게다가 미얀마는 신평남 지역에서 한국의 경제협력 다변화, 특히 GVC 다변화를 위한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지원 중 군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미얀마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사회적 안정과 안전을 전제로 미얀마 국가경제에 필요한 사회·경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재개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67) 외교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제사회 성명 발표에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와 함께 참가함(외교부 보도자료 2022, pp. 1~2).

68) Asian Development Bank(2021), p. 115.

- 미국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미얀마에 대한 최대 ODA 지원국인 일본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물론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원도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쿠데타 발발 1주기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임을 천명함.⁶⁹⁾
- 쿠데타 발발 1주년을 계기로 발표한 2022년 2월 1일의 국제사회 공동 성명에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지속을 촉구함.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나 미얀마와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미얀마를 둘러싼 정세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모니터링은 물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과 함께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해야 함은 물론, 직간접적인 해당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함.
- 미얀마에 진출해 비즈니스를 계속할 경우에는 평상시의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코로나19 및 쿠데타 이후 더욱 중요해진 애로사항을 숙지하고 극복하는 것도 필요함.
-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현지통화의 대달러 환율 급변,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부진, 대외송금 규제, 거래선의 발주량 감소 등을 들 수 있음.⁷⁰⁾

■ 특히 우리 기업은 무엇보다 미국과 EU 등의 선별 제재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 확대나 소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대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며, 더 나아가 2022년 1월 26일 발표한 미국정부의 권고안을 감안해 기존의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도 필요함.

- 미국이 최근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군부계 주요 인사나 관련 기업(표 5 참고)과의 비즈니스는 2차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외 군부계 기업이나 국유기업 역시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제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기업: MOGE, MFTB, MICB 등
- 특히 최근 TotalEnergies, Chevron, Royal Dutch Shell 등 자원 관련 기업들의 투자 중단 혹은 철수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한국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기업은 단순한 사업성 악화만이 아니라 평판 악화, 파트너 기업의 제재대상 가능성, 2차 제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투자 중단이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 자금줄의 핵심인 MOGE에 대해서는 EU가 2022년 2월 21일 제재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 역시 제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은 최근 미국정부의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권고를 유념해 비즈니스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도 필요함.

69) 日本 外務省(2022. 2. 1), 「クーデター後1年のミャンマー情勢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2. 4).

70) 三木貴博(2021. 12. 9), 「ミャンマー進出日系企業調査結果 政変後も7割近くは縮小・撤退せず」,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11).

- 미얀마 내에서 한국기업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국유기업, 보석, 부동산 등의 분야와 인권 침해, 자금 세탁, 아동 및 강제 노동 등인데, 이들은 비록 추가 제재 리스트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포함되거나 2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의 인권 관련 책임을 규정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외교부 보도자료. 2022.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2.1) 계기 공동성명 발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관여 의지 발신」. (2월 1일)
- 정재완. 2021.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동향과 시사점」. KOTRA 양곤무역관(Korea Desk) 주최 웨비나 발표자료. (6월 11일)
- 정재완, 김미림. 2018. 「미얀마 수찌 정부의 경제개혁 2년 평가와 전망」. KIEP 기초자료 18-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정재완, 김미림. 2021.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5. KIEP.
- 정재완, 김미림, 오탈현, 이현진, 윤형준, 임지운, 박나연, 김승현, 백종훈, 김민희, 최재희. 2021.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4 No.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2022 미얀마 진출전략」.

[영문자료]

- ASEAN Secretariat. 2021a. “Chairman’s Statement on the ASEAN Leaders’ Meeting.”
- ASEAN Secretariat. 2021b. “Chairman’s Statement of the 38th and 39th ASEAN Summits.”
- ASEAN Secretariat. 2022. “ASEAN Chairman’s Statement on the Situation in Myanmar.”
- Asian Development Bank. 2021.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1: 52nd Edition.
-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Myanmar. 2021. *Joint Survey on the Impact on Businesses Operating in Myanmar*.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2. “Myanmar’s Coup Shakes Up Its Ethnic Conflicts.” Asia Report N° 319. (January 12)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Cooperation(Kingdom of Cambodia). 2022. “Outcomes of the Virtual Meeting between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 Chairma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6 January 2022.”
- OECD. 202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2021: Disbursements, Commitments, Country Indicators*.
- Printing & Publishing Enterprise, Ministry of Information. 200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2008)*.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9.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2022. “Myanmar.” Humanitarian Update

No. 14. (January 17)

World Bank. 2022. *Myanmar Economic Monitor Jan 2022: Contending with Constraints*.

World Bank Group. 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일본자료]

工藤年博 編. 2015. 『ポスト軍政のミャンマー:改革の實像』. アジア經濟研究所.

福地亜希. 2021. 「クーデター後のミャンマー情勢: 膠着状態が続く中、当面は様子見スタンス」. 国際通貨研究所.

自治体国際化協会 シンガポール事務所. 2022.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ついて(ASEAN・インド・スリランカの対応状況)」. (1月24日)

みずほ銀行 国際戦略情報部. 2021. 「【ミャンマー】輸出外貨管理規制と為替動向について」. Mizuho Country Focus. (10月25日).

[인터넷 자료]

김남권. 2022. 「미얀마쿠데타 1년②반군부진영 대통령 대항 "무기·돈 유입 차단 제재 필요"」. 『연합뉴스』. (1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2000600076>(검색일: 2022. 1. 25).

Kay Thwe Oo. 2022. 「국가 비상사태 1년 후 미얀마의 경제 상황과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월 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pNttSn=193168&pStartDt=2022%2F02%2F01&pEndDt=2022%2F02%2F09&sSearchVal=%EB%AF%B8%EC%96%80%EB%A7%88&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EB%AF%B8%EC%96%80%EB%A7%88(검색일: 2022. 2. 9).

KOTRA 양곤무역관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9).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3).

日本 外務省 보도자료. 2022. 「クーデター後1年のミャンマー情勢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2월1일).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6_000656.html(검색일: 2022. 2. 4).

日本貿易振興機構. 2021. 「中国の王毅外相、ミャンマー情勢に関するASEAN緊急首脳会合の開催支持」. ビジネス短信. (4월6일). <https://www.jetro.go.jp/biznews/2021/04/9c8d3c704ec3eaea.html>(검색일: 2022. 2. 5).

三木貴博. 2021. 「ミャンマー進出日系企業調査結果、政変後も7割近くは縮小・撤退せず」. 日本貿易振興機構 地域·分析レポート. (12월9일).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1/555ea53a97338b7c.html>(검색일: 2022. 2. 11).

ADB Covid-19 Policy Database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9).

Ain Bandial. 2021. "ASEAN excludes Myanmar junta leader from summit in rare move." Reuters. (Oct 1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sean-chair-brunei-confirms-junta-leader-not-invited-summit-2021-10-16/>(검색일: 2022. 2. 7).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4).

- Central Bank of Myanmar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0).
- China COVID-19 Vaccine Tracker 홈페이지(검색일: 2022. 1. 27).
-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0).
- Dominic Oo and John Liu. 2021. "Investors Spooked by Myanmar Crisis as Economy Braces for Free Fall." *The Diplomat*. (October 20). <https://thediplomat.com/2021/10/investors-spooked-by-myanmar-crisis-as-economy-braces-for-free-fall/>(검색일: 2022. 2. 9).
- "Five-Point Road Map of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2021.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August 8). <https://cdn.myanmarseo.com/file/client-cdn/2021/08/8-8-20211.pdf>(검색일: 2022. 1. 25).
- Gwen Robinson. 2021. "Myanmar economists urge curbs on junta's hard currency access." *Nikkei Asia*. (April 29). <https://asia.nikkei.com/Spotlight/Myanmar-Crisis/Myanmar-economists-urge-curbs-on-junta-s-hard-currency-access>(검색일: 2022. 2. 12).
- Gwen Robinson. 2022. "Telenor to divest Wave Money, exit Myanmar mobile banking." *Nikkei Asia*. (January 3). <https://asia.nikkei.com/Business/Telecommunication/Telenor-to-divest-Wave-Money-exit-Myanmar-mobile-banking>(검색일: 2022. 1. 28).
- John Liu and Frontier. 2021. "Regime seeks economic recovery, but drops NLD reform agenda." *Frontier Myanmar*. (September 17). <https://www.frontiermyanmar.net/en/regime-seeks-economic-recovery-but-drops-nld-reform-agenda/>(검색일: 2022. 2. 9).
- Ministry of Commerce(Myanmar)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0).
- Our World in Data 홈페이지(검색일: 2022. 1. 27).
- Sebastian Strangio. 2022. "France's Total Backs Sanctions on Myanmar Oil and Gas Revenues." *The Diplomat*. (January 21). <https://thediplomat.com/2022/01/frances-total-backs-sanctions-on-myanmar-oil-and-gas-revenues/>(검색일: 2022. 1. 25).
- The White House. 2021. "Executive Order on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in Burma." (Feb. 1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2/11/executive-order-on-blocking-property-with-respect-to-the-situation-in-burma/>(검색일: 2022. 2. 3).
- U.S. Department of State. 2022a. "Risks and Considerations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with Exposure to Entities Responsible for Undermining Democratic Processes, Facilitating Corruption, and Committing Human Rights Abuses in Burma (Myanmar)." (Jan. 26). <https://www.state.gov/risks-and-considerations-for-businesses-and-individuals-with-exposure-to-entities-responsible-for-undermining-democratic-processes-facilitating-corruption-and-committing-human-rights-abuses-in-burma/>(검색일: 2022. 1. 28).
- U.S. Department of State. 2022b. "Business Advisory for Burma." (Jan. 26). <https://www.state.gov/business-advisory-for-burma/>(검색일: 2022. 2. 3).
- Worldometer 홈페이지(검색일: 2022. 2. 11).